

사생관 척도의 개발

이누미야 요시유키[†]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기 사생관의 전체적 구조를 밝히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즉, 자살, 임신중절, 장기기증 등의 청년기와 관련이 깊은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그 배경에 있는 내세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밝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종합적인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새로운 사생관 척도 제작을 시도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내세관 특성(내세지향성, 현세회귀성), 죽음의 의미(해방, 자연, 집대성, 좌절, 충격, 허무), 죽음불안, 죽음관여도(죽음수용, 죽음관심), 생명존중의지(자살억제의지, 중절억제의지, 장기기증의지) 등의 개념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를 재정립하였다 이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생관의 내부구조를 밝힐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일부 요소(예컨대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등)와의 관계만이 연구가 가능했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적응 및 심리 사회적 발달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사생관 전반에 걸쳐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어 : 내세관, 죽음의 의미,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생명존중의지, 자살, 임신중절, 장기기증

[†] 교신저자 : 이누미야 요시유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주공 Apt. 706동 1107호
016-256-5404 / E-mail : inumiya@hanmail.net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미래를 예상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인간의 현재 행동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규정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만약 이러한 미래의 맨 끝이 죽음이라면, 인간 행동이나 삶에 대한 이해에 있어 죽음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Feifel & Branscomb, 1973). 그리고 인간이 '죽은 자를 매장하는 유일한 동물'(Ariès, 1983)임을 감안할 때, 그 내면에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사생관(死生觀)을 연구하는 것은 동물과 대비되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을 해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AIDS, 자살, 안락사, 그리고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중독, 폭력 등의 파괴적 행동과 같은 절박한 사회 문제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Feifel, 1990), 사생관의 연구는 그 사회적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사생관이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죽음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서양근대의학의 적용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생명윤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심리학에 있어 죽음이라는 연구 주제는 20세기 중반까지 사실상 미지의 땅(*terra incognita*)이었으며 출입금지 구역이었다(Feifel, 1990). 그 배경에는 17세기 이래 서양인의 지적 관심이 신학에서부터 과학으로, 자기에 대한 영적인 지배에서부터 자연에 대한 물리적 정복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있었으며, 또 정신 철학과 형이상학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깃발을 올리겠다는 심리학의 출생 욕구와 결합된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열정도 있었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와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 그리고 인류 멸망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킨 원자폭탄의 출현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사건들은 심리학으로 하여금 중

래의 실증주의에 회의를 품게 하였고, 유럽에서 인본주의와 실존주의 심리학은 심리학이 수학적이고 물리화적인 모델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뿌리박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공헌하였다(Feifel, 1990).

심리학 분야에서 죽음에 대한 최초의 조직적 접근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56년도 연차 대회 때 개최된 '죽음의 개념과 그 행동에 대한 관계'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었다. 이 심포지엄은 1959년에 간행된 '죽음의 의미'라는 책의 기초가 되었으며, 학계에서 죽어감(dying), 죽음, 비탄에 관한 주제들이 활성화되고 일반화되는 데 이 책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 권위자들은 동의하고 있다(Feifel, 1990). 그리고 이 시도는 죽음에 대한 최초의 학제적 접근이기도 하였다(今井, 1989). 이러한 '죽음에 관한 새로운 심리학적 접근'(Kastenbaum & Costa, 1977)은 오래된 가정들을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 답할 수 있는 형태의 질문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간주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고, 또 의식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관심은 보다 근본적인 잠재적 원인을 위장시키는 신경증 환자의 기벽(奇癖)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정신분석학의 주장에 대해 검토를 가하면서 그 동안 중요성이 부당하게 평가절하 되어 온 죽음의 위치를 재고하기 시작하였다(Kastenbaum & Costa, 1977).

죽음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 시작된 지 4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성숙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Feifel(1990)은 현 발전 단계에서 이 분야의 주된 과제로서 일반적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 서술, 주요 가정들의 조작적으로 정의된 경험적 연구로의 전환, 종단 연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절차의 교차 타당화와 신뢰도 분석, 그

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의 기능적, 행동적 관련 변인들의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사생관의 구성성분으로서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의 의미, 죽음인지도, 죽음의 이미지, 죽음의 수용도, 내세관 시신처리에 대한 태도, 자살관, 임종통고에 대한 태도, 주변 인물의 죽음에 대한 회상 등을 다루어 왔으나, 죽음에 대한 공포(내지 불안)라는 개념을 제외하고는, 사생관의 구성성분에 대한 충분한 개념적 정리 없이 간략한 조작적 정의만으로 연구해왔다. 그러므로 동일한 명칭을 가진 개념의 내용이 연구자마다 상이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문항들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외국에서는 사생관 내지 죽음에 대한 태도의 각 구성성분들에 대한 여러 척도가 개발되었으나 각기 제작자가 다르기 때문에 개념의 범위가 중복되어 있기도 한다. 또 죽음에 대한 태도의 다차원적 척도가 개발되기도 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즉 포괄성이 충분하지 않거나(Meadow & Kahoe, 1984) 여러 개념들을 병렬적으로 취급하고 사생관의 각 단면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뿐 범주화시키거나 구조적 관계를 보려는 시각이 약한 편이다(金兒, 1996; 丹下, 1999; Spilka, Stout, Minton, & Sizemore, 1977). 그리고 개념적 정의를 하지 않고 요인분석에만 의거해서 차원을 나눈 바람에 타당성이 부족한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다(金兒, 1996; 丹下, 1999). 더구나 문화적 전통의 차이 때문에 특히 내세관과 관련된 차원은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金兒, 1996; 丹下, 1995; Spilka, Stout, Minton, & Sizemore, 1977). 이런 상황에서는 선행연구의 조작적 정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함과 동시에 한국의 종교학, 민속학 등의 관련 문헌들도 참고로 하여 충

분한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구비한 사생관의 여러 구성성분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새로운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생관의 구성성분으로서 내세관(來世觀), 죽음에 대한 해석, 정서(情緒), 관여도(關與度) 및 자살, 장기기증,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생명윤리관(生命倫理觀) 등의 여러 측면의 개념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의 재정립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인의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된 내세관이 포함된 종합적인 사생관 척도가 개발되면 사생관의 하위요소간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청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문제인 자살이나 임신중절과 같은 행동을 이해하고 예방책을 강구하는 데 공헌하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이식이 활발한 구미 제국에 비해 장기기증이 적은 한국의 실정을 한국인의 내세관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생관

기존연구는 주로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내용은 죽음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삶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용어는 삶과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명칭이며, 삶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측면만이 부각되는 우려가 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김태련, 1988), 그 내용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죽음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삶

에 대한 태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죽음을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설정하면서 죽음을 내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생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생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유사한 주제를 연구해온 종교학·철학·문학과는 대조적으로, 내세관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본 연구 목적 중의 하나는 내세관의 기능을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특정한 내세관에 의거하여 죽음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삶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는 종교학·철학·문학 분야에서 사용해왔던 ‘사생관’이라는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생관을 ‘죽음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삶에 대한 태도’로서 형성된, 내세관과 죽음의 의미(인지적 요인), 죽음불안(정서적 요인), 죽음관여도(동기적 요인), 및 생명존중의지(의지적 요인)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역동적인 체계로 정의한다. 그리고 죽음의 의미, 죽음불안, 및 죽음관여도만을 가리킬 때는 죽음에 대한 태도라고 하고, 내세관,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생명존중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범주를 가리킬 때는 사생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각 구성요소에 대해 정서적 요인(죽음불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인지적 요인(죽음의 의미와 내세관), 그리고 그들의 귀결로서 동기적 요인(죽음관여도)과 의지적 요인(생명존중의지)의 순서로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죽음불안

공포는 기지(既知)의 확실하게 한정된, 갈등이

없는 외적인 위협에 대한 급성의 불쾌한 정서적 반응이다. 한편 불안은 미지의 명료하지 않는 갈등을 내포한 내적인 위협에 대한 만성적인 불쾌한 정서적 반응이다 (Kaplan, Sadock & Grebb, 1994). 이러한 구별은 유용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반응의 대상이 죽음인 경우가 그 좋은 예인데, 연구자들은 죽음 공포(fear of death)와 죽음불안(death anxiety)이라는 용어를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Feifel & Branscomb, 1973). 공포와 불안을 구별하는 기준들에 맞추어서 생각하면 죽음불안이라는 용어가 더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죽음이 무섭고 두렵다는 느낌에는 불안보다 공포라는 용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은 죽음의 이중성, 즉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점에서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는 듯하면서도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애매 모호한 것은 없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 기존 연구들의 관행을 답습하여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이라는 용어를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인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저자의 어법에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죽음불안(또는 죽음공포)을 죽음과 관련된 어떤 측면에 대한 묵상이나 예기로 인한 걱정과 불쾌한 느낌을 포함한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한다.

죽음불안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화 연구

기존의 죽음불안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화 연구들을 종합해 본다면, 죽음불안의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죽음불안은 누구의 죽음이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즉 자신의 죽음 및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타인의 죽음 및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

나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나에 따라 다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가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 타인이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라는 4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진다(Collett & Lester, 1969).

이들 중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죽음의 개인내적(intrapersonal) 귀결로 인한 공포, 대인적(interpersonal) 귀결로 인한 공포, 개인초월적(transpersonal) 귀결로 인한 공포의 3가지로 분류된다(Florian & Kravetz, 1983).

개인내적 귀결로 인한 공포는 '자기소멸에 대한 공포'(이길홍, 1980; 조지연, 1989; Conte, Weiner & Plutchik, 1982; Florian & Kravetz, 1983), '자기실현 상실에 대한 공포'(이길홍, 1980; 岡村, 1983; Devins, 1979; Florian & Kravetz, 1983; Hoelter, 1979), '시신 처리에 대한 공포'(Hoelter, 1979; Thorson & Powell, 1988)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적 귀결로 인한 공포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영향에 관한 공포'(Florian & Kravetz, 1983; Hoelter, 1979), '자기 연장의 상실에 대한 공포'(이시형, 1980; Florian & Kravetz, 1983), '분리와 고독에 대한 공포'(이시형, 1980)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초월적 귀결로 인한 공포에서는 '죽음의 불가지성(不可知性)에 대한 공포'(이시형, 1980; Conte, Weiner & Plutchik, 1982; Florian & Kravetz, 1983; Hoelter, 1979; Thorson & Powell, 1988), '사후세계의 불가지성에 대한 공포'(이길홍, 1980; 조지연, 1989; Thorson & Powell, 1988), '내세에서의 처벌에 대한 공포'(조지연, 1989; Florian & Kravetz, 1983)를 구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온 죽음불안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화 연구들은 죽음불안의 질적 차이를 인식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생관 연구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상과 같은 접근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정서적 측면

인 죽음불안과 인지적 측면인 죽음의 의미를 부적절하게 혼합시켰다는 점이다. 죽음불안의 질적 차이를 밝히려고 한 기존 연구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죽음불안의 하위요인을 측정해왔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고(Florian & Kravetz, 1983), 또 하나는 죽음의 특정한 측면을 부각시킨 후, 그에 수반되는 불안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는 '나는 죽음이 두렵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멸되기 때문이다'와 같은 형식의 문항들이다. 후자의 경우는 '자신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면 무섭다'와 같은 형식의 문항들이다. 인지적 성분인 죽음의 의미와 정서적 성분인 죽음불안을 결합시켜서 한 문항을 구성하는 이러한 측정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즉, 전자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는 죽으면 자신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절한 문항이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불안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적절한 문항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문항이 될 수 없다. 죽음이 자신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경우는 아무리 강한 죽음불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서적 요소에 대해 자기평가하기 전에 그 문항의 인지적 요소에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인지적 성분인 죽음의 의미와 정서적 성분인 죽음불안을 결합시켜서 한 문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성분을 다른 문항으로 분리시켜서 측정하여 그 조합에 의해 죽음불안의 질적 차이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접근은 죽음불안만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교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해석 가운데는 죽음

불안을 야기하는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죽음 불안을 억제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의미와 내세관

죽음에 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철학자도 의사도 신학자도 그리고 법률가도 죽음에 관해 어떤 해답을 주지 못한다. 단지 경험적인 또는 이론적인 견해만을 말할 뿐이다(이길홍, 1980).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재료로 하여 다양한 죽음에 대한 해석을 조형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죽음의 의미에 관한 개인차는 죽음과 관련된 정서나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이러한 의미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죽음의 의미(meanings of death), 죽음관(death perspectives, 死觀), 죽음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death), 내세신앙(belief in afterlife) 등의 제목으로 연구되어 왔다. 죽음에 대해 불안이나 공포를 위시한 여러 가지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는 죽음이 갖는 의미가 다양하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반영하여 죽음의 의미에 관한 연구들은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포함시켜 다차원적인 개념화를 시도해왔다.

죽음의 의미에 대한 개념화 연구들

기존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화 연구들을 종합해 본다면, 죽음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먼저 죽음에 대한 의미는 Florian과 Kravetz(1983)의 틀을 빌려, 죽음의 개인내적(intrapersonal) 귀결, 대인적(interpersonal) 귀결, 개인초월적(transpersonal) 귀결의 3가지 영역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죽음의 개인내적 귀결은 '좌절'(河野, 1998; Spilka et al., 1977), '자연스러운 종말'(Spilka et al., 1977; Wong, Rekter & Gesser, 1994), '해방'(丹下, 1999; Wong, Rekter & Gesser, 1994)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죽음이 갖는 개인내적 귀결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대응하는 해석들이다. 즉, 죽음은 한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좌절' 차원은 부정적 측면에 주목한 것이고, 죽음은 삶의 자연적인 측면이며 시간의 정상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오는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종말' 차원과 죽음을 인생의 무거운 의무와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간주하는 '해방' 차원은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죽음의 대인적 귀결에서는 '충격'(Spilka et al., 1977), '허무'(金兒 1994, 1996; 河野, 1998; Spilka et al., 1977), '집대성'(金兒, 1994, 1996; 河野, 1998; Cicirelli, 1998; Spilka et al., 1977)을 구별할 수 있다. 이들 중 '충격' 차원은 Spilka 등(1977)의 '가족과의 이별' 차원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꾼 차원인데, 자신의 죽음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 차원과 '허무' 차원은 죽음이 갖는 대인적 귀결의 부정적 측면을 조명한 것이고 '집대성' 차원은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개인의 죽음이 갖는 중요성을 부인하고 사회적으로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는 '허무' 차원은 개인의 죽음을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인 반면, 죽음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라고 여기는 '집대성' 차원은 개인의 죽음을 보다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시각

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초월적 귀결은 ‘미지’(金兒, 1994, 1996; 河野, 1998; Spilka et al., 1977), ‘내세신앙’(金兒, 1996; 丹下, 1999; Cicirelli, 1998), ‘정복한 내세’(金兒, 1994, 1996; 河野, 1998; Spilka et al., 1977; Wong, Rekter & Gesser, 1994)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개인초월적 귀결로 인한 공포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의 구체성에 따라 구분되는 차원들이다. ‘미지’는 죽음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알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는 차원이다. 죽음을 미지의 일로 간주하는 주된 이유는 사후세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없는 데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는 ‘내세신앙’을 강하게 긍정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경우는 죽음을 미지의 일로 간주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다. ‘내세신앙’을 부정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정복한 내세’도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내세신앙’을 긍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복한 내세’도 긍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는 ‘내세신앙’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내세관의 종류에 따라 행복한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처벌을 받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죽음의 이해 불가능성(가능성)을 나타내는 ‘미지’ 차원과 사후세계의 존재를 긍정(부정)하는 ‘내세신앙’ 차원 그리고 사후세계에서의 존재양상을 행복한(불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복한 내세’ 차원은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죽음의 개인초월적 귀결에 관한 차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죽음의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내적 귀결, 대인적 귀결, 개인초월적 귀결에 속하는 몇 가지 차원들에 주목하여 죽음

불안이나 죽음 관련 경험 등과의 관련을 검토해 왔으나 죽음에 관한 신념들 사이에 있는 구조적 관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죽음의 개인내적 귀결과 대인적 귀결은 개인초월적 귀결의 영향을 받아 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갖는 의미는 그 사람의 내세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의 내세관을 의미하는 죽음의 개인초월적 귀결은 그 이외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요소라는 뜻에서 보다 기저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죽음의 개인초월적 귀결은 개인내적 귀결이나 대인적 귀결과는 구분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죽음의 개인초월적 귀결을 기타의 차원들과 구분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취급해온 하나의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개인초월적 귀결에 관한 차원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죽음의 의미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초월적 귀결에 관해 ‘미지’를 포함해서 하나 내지 두 개 차원만을 고려할 뿐, 더 체계적인 개념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죽음의 이해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미지’ 차원, 사후세계의 존재를 긍정하는 ‘내세신앙’ 차원, 그리고 사후세계에서의 존재양상을 행복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복한 내세’ 차원이 내세관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들 차원만으로 충분한 포괄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여러 종교의 전통이 혼합되어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하나의 특정한 내세관을 전제로 하여 죽음의 의미를 개념화했기 때문이다. 즉, 구미의 연구는 기독교적 내세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숭배와 같은 죽은 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포착하는 차원이나 윤회사상을 측정하는 차원 등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

의 내세관에 대한 개념화를 토대로 하여 죽음의 개인초월적 귀결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죽음의 개인초월적 귀결이 개인 내적 귀결이나 대인적 귀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의미 연구에 포함된 개인초월적 귀결 차원뿐만 아니라 내세관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살펴봄으로써 충분한 포괄성이 있고 문화적 타당성도 있는 개인초월적 귀결 차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내세관에 대한 연구

기존의 내세관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개인초월적 귀결을 내세관 특성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내세관 특성으로서는 기존의 ‘내세신앙’, ‘이상세계’라는 2가지 차원에 ‘윤회사상’, ‘영혼의 영향’, ‘인과응보론’, ‘조상의 영향’이라는 4가지 차원을 추가하여 6가지 차원을 가정하였다.

즉, ‘내세신앙’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긍정(-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며(金兒 1996; 丹下, 1999; Cicirelli, 1998; Osarchuk & Tatz, 1973), ‘이상세계’는 사후세계에서의 존재양상을 행복한(-불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金兒, 1994, 1996; 河野, 1998; Spilka et al., 1977; Wong, Reiter & Gesser, 1994). ‘윤회사상’은 사람은 죽어도 환생(還生)하는 것이며 생명은 여러 번 반복해서 비로소 의미를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을 긍정(-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고(이누미야, 최일호, 한성열, 2001; 金兒 1996; 今井, 1989; Thalbourne, 1996), ‘인과응보론’은 현세에서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사후세계에서 보상이나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긍정(-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이누미야 등 2001). ‘영혼의 영향’은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현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양화(殃禍)를 일으키거

나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견해를 긍정(-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며(이누미야 등, 2001; 池口, 1998; 金兒, 1997; 丹下, 1999), ‘조상의 영향’은 조상들의 죄나 공덕 또는 묘 자리에 따라 그 후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를 긍정(-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박종한, 1979; 최길성, 1986). 이 마지막 차원은 지금까지 심리학 분야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한국인의 내세관을 개념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차원이라고 생각된다.

박종한(1979)은 민속상의 모든 제도는 그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민중의 군중심리가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특히 각 지방마다 절차나 형식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현저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의식(儀式)이 현저하게 변화하지 않은 채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균일성 있는 상제(喪祭)나 제례(祭禮)에는 다른 통과의식보다 민족의 무의식이 더 깊이 투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장례의식(葬禮儀式)에 숨겨져 있는 민족 전체의 죽음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개념 중 특징적인 것은 영혼불멸 사상(靈魂不滅思想)이다. 인간은 사후에 영혼(靈魂)과 육체(肉體)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무의 상태(昏)로 환원되지만 영혼은 저승에서 또 다른 고차원적인 존재양식을 취하며 강력한 힘을 지닌다. 죽음이란 한국인에 있어서는 무존재(無存在)로의 환원이 아니고 존재형태의 변화로 인식된다.

조상숭배는 특히 중국 전래의 유교와 관련이 깊지만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에서도 어느 정도 조상에 대한 숭배와 사자에 대한 인격신적 의례화 등 유교 전래 이전의 조상숭배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죽은 자에 대한 공포감과 애정이 복합된 심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조상숭배는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길성, 1986). 최길성(1986)에 따르면 한국에는 조상과 자손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풍수, 유교, 무속이라는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한다. 무속 신앙은, 풍수사상에서 말하는 죽은 이의 시체를 묻은 장소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 자손에게 길흉의 영향관계가 있다는 메카니즘과 죽은 이에게도 제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유교의 효를 보다 신앙적으로 만드는 활력소가 되었다고 한다. 즉, 풍수에서는 일방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는 것이고, 제사는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바치는 것인데, 무속은 조상이 수호신적 기능을 한다고 보면서 죽은 자가 살아 생전의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상호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하나의 복합적 신앙 형태로서의 조상숭배로 이들 두 가지를 결합시킨 것이다.

죽음관여도

사생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은 죽음과 관련된 동기적 측면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할 수도 있고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생관의 동기적 차원에 대한 개념화는 아직 확립된 상태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여러 연구자가 거의 독립적으로 개념화하고 각자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생관의 다른 측면과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보이지만 크게 나누면 긍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과 부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즉, 권혜진(1980)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를 죽음 인지도로 개념화한 바가 있으며, 이것은 장휘숙(2000)의 죽음에 대한 사고의 빈도라는 개념과 같은 것이다. 또 단계(丹下, 1995)는 죽음에 대한 사색경험의

깊이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빈도를, 깊이와 빈도라는 속성을 가진 사색성(思索性)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 방향의 개념화와는 반대로 부정적 방향으로도 개념화되었다. Wong 등(1994)의 수정판 죽음 태도 분석표(DAP-R) 중에는 ‘죽음 회피’라는 차원이 있으며, 가네코(金尾, 1996)의 죽음관(死觀) 척도에도 ‘무관심과 도피’라는 차원이 존재한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죽음 인지도나 죽음에 대한 사색성 등)과 부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죽음 회피나 무관심과 도피 등)을 포괄하는 차원으로서 죽음관여도라고 칭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죽음관여도라는 변인에 관해서는 주로 죽음불안과의 관계를 검토해왔는데, 일부 일관되지 않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일군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는 사람일수록 죽음불안이 강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죽음관여도와 죽음불안은 부적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장휘숙(2000)의 연구에서는 반대로 죽음에 대한 사고의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죽음불안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죽음관여도와 죽음불안은 정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죽음관여도를 측정할 때 긍정적 방향의 문항뿐만 아니라 부정적 방향의 문항도 동시에 사용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명존중의지

오늘날 생명의 시작과 종말에 관한 윤리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오랜 역사가 있는 자살, 안락사, 낙태, 사형제도와 같은 생명 윤리문제 뿐만 아니라 의학과 의료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 즉 체외수정, 유전자

조작, 인간복제, 장기이식, 뇌사와 같은 문제들이 등장하여 윤리적 가치 판단에 관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체계적인 학문으로서의 생명윤리학(bioethics)이 1970년대부터 새로운 학문 분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한국 사회와 학계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에 관심을 보여왔다(소병욱, 1996). 이러한 생명윤리학은 바람직한 생명윤리에 대한 철학적 기초의 탐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 형성을 과제로 삼고 있지만, 본 연구의 관심은 그러한 사회적 수준에서 생명윤리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의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판단과 그것을 내포하는 의도 내지 의지가 어떤 사생관을 배경으로 형성되는지에 있다. 사생관과 생명윤리의 관계를 검토하려는 시도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지만(池口, 1998; 丹下, 1998; 松浦, 2000), 생명윤리에 대한 특정한 가치관을 추진하기 위해 거기에 부합되는 사생관을 일반적인 것처럼 인용하여 아전인수격으로 논하는 경우가 많다는 실정을 감안하면(成澤, 1999), 개별적인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태도가 사생관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어떤 차원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사회적 수준에서 생명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로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이 갖고 있는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태도는 문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청년기의 사생관에 특히 관심이 있는 본 연구자는 그들에게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기증, 자살, 및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주목하였다. 장기기증의도, 자살억제의지, 그리고 중절억제의지 등의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태도는 사생관의 의도적(내지 의지적) 측면으로서 장기기증, 자살, 및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생명윤리문제에 관한 행동을 예언하는 변

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생관의 다른 측면들, 즉 내세관 특성과 죽음의 의미, 죽음관여도, 그리고 죽음불안이 장기기증의도, 자살억제의지, 그리고 중절억제의지 등의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생명존중의지의 지표로서 장기기증의도, 자살억제의지, 그리고 중절억제의지를 선정하였다.

장기기증의도

장기기식은 만성장기부전증 환자에게 좋은 치료법이 되고 있으며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하희선, 김정순, 1996). 장기이식에 대한 환자의 수요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반면 공급 장기의 수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 식용장기의 대부분은 뇌사자로부터만 구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그 중요성을 더해하고 있다(주호노, 1999). 10대와 20대의 사망원인 중 교통사고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부의 외상으로 인해 집중치료실에서 사망한 건강한 초기 성인기의 사람들이 이상적 및 전형적 장기기증자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Horton & Horton, 1991) 잠재적 장기기증자의 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장기기증자로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장기기증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사려 깊은 결단을 내리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은 장기기증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Reubsaet, Borne, Brug, Pruyn, & van Hooff, 2001). 장기기증의도는 장기기증자로 등록하는 행동과 밀접하고 정적인 관련을 갖는 요인인데(Birkimer, Barbee, Francis, Berry, Deuser, & Pope, 1994; Horton & Horton, 1991) Radecki와 Jaccard(1997)는 미국에서의 장기기증의도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개관하여

사회적 결과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이타주의적 신념과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이 장기기증의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신념과 지식이 장기기증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결정하고 이 태도에 의해 장기기증자로서 등록하려는 의도가 예언된다고 제안한다. 아직까지 연구가 미비한 영역이지만 개인이 죽음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즉 사생관도 장기기증의도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장기기증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또 생명의 위기에 처한 타자(환자)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丹下, 1998). 다시 말하면 장기기증의도는 내세관, 죽음에 대한 의미부여, 죽음관여도, 죽음불안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기증이 활발한 구미 제국에 비해 장기기증이 적은 한국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과의 관련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기증의도를 사생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사생관의 기타 요소들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자살억제의지

사람은 자기자신이나 현실세계에 환멸을 느껴서 우울해지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러한 자살생각은 이후에 보일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다(Beck, Kovacs, & Weissman, 1979). 그러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를 이끌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살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자살에 대한 강한 내적 억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살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aumeister(1990)는 심리학과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에서의 자살 연구들을 종합하여 자살에 대한 인과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살에 관한 탈출 이론(the escape theory of suicide)이라고 명명된 이 모델에 의하면, 자살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선행 단계를 거친 후에 자기로부터의 탈출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하는 최종 단계에 이른다. 즉, (1) 높은 기준 내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2) 괴리에 대한 내부 귀인, (3) 자기지각(self-awareness)의 고조와 부정적 자기평가, (4) 부정적 정서, (5) 인지적 와해(cognitive deconstruction), (6) 자살억제의 감소라는 6단계를 거쳐 당면하는 생활 문제와 자기의 내포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소원이 점증되어 그 수단으로서 자살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자살생각의 증가뿐만 아니라 자살억제의 감소도 자살에 이르는 결정적 기로로서 중요시된다.

이들 중 인지적 와해란, 새로운 의미, 맥락, 해석, 해결책, 그리고 가능성을 탐구하는 건설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저 수준의 사고 과정(low-level thinking)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적 와해는, 완전한 성공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고통스러운 자기인지와 부정적 정서로부터의 탈출수단이 되는 것이다. 내부 귀인, 자기지각, 부정적 정서는 모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고 자체를 거부하면 이들 세 가지 요소를 다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다. Baumeister(1990)는 인지적 와해의 주된 지표로서 시간적 전망의 수축(과거와 미래의 부재), 구체적인 사고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결여, 장기적 계획의 결여, 아주 가까운 목표와 세부 사항의 강조의 세 가지를 지적했다.

인지적 와해가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자살 억제력의 감소이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

람에게는 자살에 대한 강한 내적 억제가 존재하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이러한 내적 억제가 제거된다. 의미 있는 사고의 거부 또는 회피를 의미하는 인지적 왜해가 진행된다면,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 타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미래의 행복에 대한 기대와 같은 인지적으로 구성된 자살억제력의 기반들이 붕괴되어 자살을 억제하려는 의지도 약화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충동적 자살이라는 것은 억제력의 결여를 의미한다. 다만 자살에 관한 탈출 이론에 의하면, 자살하는 사람의 충동성은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서의 충동성이 아니라 인지적 왜해로 인해 억제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상태로서의 충동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Baumeister(1990)는 인지적 왜해의 결과로서 자살 억제력의 감소 이외에 수동성, 감정의 결여, 그리고 환상 내지 비합리적인 사고를 들고 있으며,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자신의 죽음이 타인에게 주는 효과의 상상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기준과 현실의 괴리, 부정적 정서, 인지적 왜해와 자살생각의 관계는 실증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으나(김정원, 1992; 박광배, 신민섭, 1990;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윤성림, 윤진, 1993; 이희철, 1995), 자살억제의지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살억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것도 자살행동을 이해하고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사고의 부정과 환상 그리고 자살억제의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탈출 이론의 주장에 입각하여, 사생관의 인지적 측면인 죽음의 의미와 내세관이 자살억제의지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하

에 자살억제의지를 사생관의 중요한 차원으로 간주하였다.

중절억제의지

인공임신중절은 오래된 생명윤리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까지 별로 뚜렷한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혼, 미혼을 막론하고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한 경험이 있으며 대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의 16.1%가 임신을 했거나 상대 여성에게 임신을 시켜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중앙일보, 2001. 8. 10),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인공임신중절을 하거나 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인공임신중절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부담이 큰 행위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주된 이유로서는 학업이나 직업의 관계상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 경제적 어려움, 원하지 않는 성(性)의 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 태아에게 중대한 장애나 유전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등이 있으며 당사자 이외의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압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사자인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때, 상황을 막론하고 중절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상황에 따라서는 중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인공임신중절을 부정하거나 허용하는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중절억제의지는 인공임신중절 행동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성행동이나 피임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인공임신중절의 찬반에 관한 일반적인 태도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Radecki et al., 1997). Sagan(1997)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태아를 생명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중절을 살인과 동등한 행위로 간주하는 생명존중주의적 입장이며, 또 하나는 태아를 여성의 몸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물로 보고 중절을 여성의 자기결정에 의해 선택될 수도 있는 행위로 간주하는 개인주의적 입장이다(松浦, 2000에서 재인용).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는 중절억제의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행동에 보다 근접한 개념인 중절억제의지만을 다루기로 하고, 죽음관여도와 내세관이 중절억제의지에 일정한 영향을 줄 거라는 가정 하에 이를 사생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하였다.

사형제도나 인간복제와 같은 문제와는 달리, 자살, 임신중절, 장기기증은 생명윤리에 관한 제 문제 중에서도 자기자신의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문제들이다. 자살억제의지, 중절억제의지 그리고 장기기증의도는 각기 다른 대상에 대한 태도이지만 생명에 대한 태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각각은 자기자신의 생명, 자신과 관련이 있는 태아의 생명 그리고 장기부전증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동일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즉 자살억제의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겠다는 의지이며, 중절억제의지는 만약 자신이(또는 배우자나 애인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고(또는 권하지 않고) 아기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겠다는 의지이고 장기기증의도는 자신이 만약 죽게 될 때에는 자신의 장기를 장기부전증 환자에게 기증함으로써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이들은 다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사회통념상 생명은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지만, 그 가치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은 주관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 및 타인의 생명에 대한 가치 인식을 내포하는 자살억제의지, 중절억제의지 그리고 장기기증의도는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일반적 가치 인식이 나타나는 세 가지 차원이라고 생각된다.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노인과 임종환자 및 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일반인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다. 특히 청년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소수였다. 그러나 죽음은 노인과 임종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과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면서 살아간다. 의기 왕성한 청년들도 각 개인마다 독특한 죽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사람, 죽음을 인생의 좌절로 보는 사람, 죽음을 해방으로 간주하는 사람 등 다양한 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청년기와 관련이 깊은 절실한 사회문제인 자살, 임신중절, 장기기증과 같은 생명윤리에 관한 태도나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생명윤리에 관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석 1. 사생관 척도의 개발

그 동안 한국인이 갖는 내세관의 기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

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개개인의 죽음에 대한 해석,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등은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내세관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즉 죽음에 대한 태도의 배경에는 사후세계나 사후 생명에 관한 신념이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생명에 대한 태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후세계나 사후생명에 관한 신념은 내용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지만,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각 요소에 대한 기술적 수준의 실태 조사 연구였으며 그 역동적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내세관과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생명존중의지의 여러 차원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을 측정하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척도들은 포괄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개념의 범위가 중복되어 있었고,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차원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세관과 관련된 척도가 없었고, 동일한 명칭을 가진 개념의 내용이 연구자마다 상이한 경우도 있었으며 여러 문항들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한 새롭고 종합적인 사생관 척도 제작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방 법

조사 대상자

본 조사는 대학생 6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부분적으로 응답하거나 무선허 반응 경향성이 의심되는 31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579명(남 244명, 여 335명; 평균 연령 21.52세; 불교 55명, 천주교 83명, 개신교 159명, 기타 종교 7명, 무종교 2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는 수업 장면에서 단체로 실시하였는데,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사이였다.

척도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범주에 속한 18개의 하위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예비적 척도가 구성되었다. 우선 내세관 특성의 여섯 가지 차원, 즉 내세신앙, 이상세계, 윤회사상, 인과응보론, 영혼의 영향, 및 조상의 영향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32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 범주에는 하위범주인 죽음의 의미에 속하는 집대성, 자연, 충격, 좌절, 허무, 및 해방의 6가지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38개의 문항, 하위범주인 죽음불안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10개의 문항, 그리고 하위범주 죽음관여도에 속하는 죽음관심과 죽음수용의 2가지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12개의 문항 등 총 60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세 번째로 생명존중의지의 하위차원인 장기기증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3문항, 자살억제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5문항, 및 중절억제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4문항의 계 12문항이 선정되었다.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의 주된 출처는 기존 척도와 관련 문헌이었으며(표 1 참조), 문장완성법 질문지를 통해서 40명의 대학생에게서 얻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언어보고 자료에 나타난 표현들도 문항 작성 시에 참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항들을 죽음에 대한 태도, 내세관, 생명존중의지의 순서로 배열하여 각 문항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표 1.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의 주된 출처

하위 척도명	참 고 문 헌
내세관 특성	
내세신앙	金兒(1996), 丹下(1999), Cicirelli(1998), Osarchuk 등(1973)
이상세계	金兒(1996), 河野(1998), Spilka 등(1977), Wong 등(1994)
윤회사상	이누미야 등 (2001), 金兒(1996), 今井(1989), Thalbourne(1996)
인과응보론	이누미야 등 (2001)
영혼의 영향	최길성(1986), 이누미야 등 (2001), 池口(1998), 金兒(1997), 丹下(1999)
조상의 영향	박종한(1979), 최길성(1986)
죽음의 긍정적 의미	
해방	丹下(1999), Wong 등(1994)
집대성	金兒(1996), 河野(1998), Cicirelli(1998), Spilka 등(1977)
자연	Spilka 등(1977), Wong 등(1994)
죽음의 부정적 의미	
좌절	河野(1998), Cicirelli(1998), Spilka 등(1977)
충격	Spilka 등(1977)
허무	金兒(1996), 河野(1998), Spilka 등(1977)
죽음불안	岡村(1983), 金兒(1996), Collett 등(1969), Templer(1970)
죽음관여도	
죽음관심	권혜진(1980), 장휘숙(2000), 丹下(1995)
죽음수용	金兒(1996), Wong 등(1994)
생명존중의지	
장기기증의지	池口(1998), 丹下(1998)
자살억제의지	이은주, 김철규(1980), 丹下(1999), Baumeister(1990)
중절억제의지	中山, 石坂, 水谷(1986), 松浦(2000)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결 과

각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준거를 사용하였다. 첫째, 해당 하위척도 내에서 문항-총점 상관인 .30 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하였다(준거1). 둘째, 해당 범주에 속하는 모든 하위척도 문항들에 대한 최대우도 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한 사각 회전(Direct Oblimin 방식)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이론

적으로 예상되는 차원에 최대이면서 동시에 절대치로 .30 이상의 구조 계수 (factor structure loading)를 보이는 문항만을 선정하였다(준거 2). 셋째, 위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절대치로 최대의 구조 계수와 두 번째로 큰 구조 계수의 차이가 .10 이상 있는 문항만을 선정하였다(준거 3).

내세관 특성

내세관 특성의 각 하위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문항들 중에서 먼저 준거 1에 미치지 못한 두 문항(윤희사상 차원에 속한 두 개의 문항)을 추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다음으로 내세관 특성 범주에는 내세신앙, 이상세계, 인과응보론, 윤희사상, 영혼의 영향, 및 조상의 영향 차원 등 총 6개의 하위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요인의 수를 6으로 지정하여 최대우도법에 의한 사각 회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달리 요인 회전전의 최초 고유값이 1을 넘는 요인이 5개이었다(제 1 요인: 9.06, 제 2 요인: 6.83, 제 3 요인: 2.05, 제 4 요인: 1.20, 제 5 요인: 1.05). 이렇듯 6개의 요인을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시사되었으며, 동시에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해서 요인의 수를 5로 지정하는 방법과 제 2 요인과 제 3 요인 사이에서 고유값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에 근거해서 요인의 수를 2로 지정하는 방법이 대안으로서 유력함이 시사되었다.

그래서 먼저 요인의 수를 5로 지정하여 다시 요인분석(주축요인분석, Oblimin 회전)을 실시하였으나 제 5 요인에 최대의 구조 계수 값을 갖는 문항이 전무하여 요인의 내용을 해석하기가 어려웠고 또 제 1 요인과 제 3 요인에 동시에 높은 구조 계수 값을 갖는 문항들과 제 2 요인과 제 4 요인에 동시에 높은 구조 계수 값을 갖

는 문항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요인의 수를 2로 지정하여 다시 한 번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당히 분명한 2요인 구조를 얻었다. 단 준거2에 미치지 못한 두 개의 문항(인과응보론 차원에 속한 문항 1개와 영혼의 영향 차원에 속한 문항 1개)이 있어서 그 두 문항을 제외시켜 다시 동일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28개의 내세관 특성 측정 문항들에 대한 구조 계수 행렬(structure matrix)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내세관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요인, 즉 윤희사상과 영혼의 영향 및 조상의 영향 차원에 속한 15개의 문항들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내세신앙과 이상세계 및 인과응보론 차원에 속한 13개의 문항들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세관 특성 전체 변량 중에서 제 1 요인은 약 28.5%를, 제 2 요인은 약 21.7%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충분히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제 1 요인에 묶인 문항들은 사람이 죽으면 환생할 기회가 있다고 보는가와 조상이나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현세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제 1 요인을 '현세회귀성' 요인이라고 이름 붙였다. 제 2 요인에 묶인 문항들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는가와 사후세계의 존재양상이 이상적이라고 보는가와 사후세계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제 2 요인을 '내세지향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처음에는 여섯 가지의 내세관 특성 차원을 가정하였으나, 윤희사상과 영혼의 영향 및 조상의 영향 차원간의 밀접한 개념적 관련성과 내세신앙과 이상세계 및 인과응보론 차원간의 밀접한

표 2. 내세관 특성 문항의 구조 계수 행렬

문항	M (SD)	요인 1 현세회귀성	요인 2 내세지향성
조상들의 묘 자리가 안 좋을 경우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3.11 (1.55)	.830	
땅에 묻힌 조상의 뼈가 그 땅의 좋은 생기를 받으면 자손이 번성한다.	3.34 (1.52)	.782	
그다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도 잘 사는 사람은 공덕이 많은 조상의 후손인 경우가 많다.	2.62 (1.33)	.768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은 조상의 후손인 경우가 많다.	2.61 (1.34)	.754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후손들이 죄를 갚아야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된다.	2.82 (1.36)	.748	
자손이 죽은 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극진한 효도를 다했다고 하여도, 묘 자리를 잘못 쓰면 해를 입는다.	2.48 (1.28)	.746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은 귀신이 되어 질병이나 재앙 등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2.98 (1.40)	.744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난다.	3.03 (1.41)	.741	
사후세계의 사람들은 후손이나 돕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3.65 (1.54)	.693	.220
모든 사람에게는 전생이 있으며, 또 죽으면 환생하는 기회가 있다	3.76 (1.75)	.682	
원한이 강한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한을 푸는 경우가 있다.	3.57 (1.55)	.681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 다시 태어나고 그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3.61 (1.69)	.678	
조상들이 세운 공덕이 많으면 후손들이 큰 고생 없이 행복하게 잘 산다.	3.46 (1.56)	.664	
살아 생전에 불효하였다고 하여도, 묘 자리만 잘 쓰면 그 자손은 조상의 덕을 보게 된다	2.20 (1.18)	.620	
사후세계의 존재들과 현세의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3.82 (1.53)	.501	.249
나는 죽으면 더 좋은 세계로 간다고 생각한다.	4.29 (1.61)		.817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속된다.	4.69 (1.66)		.816
인간의 육체는 죽어서 썩어 버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4.78 (1.57)		.811
나는 죽으면 아주 아름다운 세계로 간다고 생각한다.	4.24 (1.60)		.781
사후의 생명이나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R)	4.77 (1.58)		.753
죽으면 흙에 묻히게 되고 그 후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R)	4.66 (1.73)		.722
나는 육체를 벗으면 행복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0 (1.63)		.716
악한 삶을 영위한 사람은 반드시 사후세계에서 벌을 받는다.	4.24 (1.61)	.276	.645
내가 가게 되는 사후세계는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는 세계라고 생각한다.	4.39 (1.62)		.588
죽음이란 소멸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5.30 (1.51)		.576
현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내세의 삶을 결정하는 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4.23 (1.63)	.356	.558
내가 가게 되는 사후세계는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3.46 (1.52)		.533
사후세계에서는 현세에서의 선행이나 악행이 문제되지 않는다. (R)	4.94 (1.41)		.425
고 유 근		8.00	6.09
총 변산 비율		28.5%	21.7%
요인 평균		3.14	4.44
(표준편차)		(1.07)	(1.12)

주. 구조 계수 .20 미만은 생략함. (R)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개념적 관련성을 반영한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내세관 특성들이 이러한 두 가지 차원으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내세관 특성에 포함된 여러 차원들은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을 측정하는 15문항과 13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 점수는 해당 문항 점수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3과 .91로 나타났다. 또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간에는 .09($p < .05$)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죽음의 의미

죽음의 의미의 각 하위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문항들 중에서 먼저 준거1에 미치지 못한 두 문항(자연 차원에 속한 문항 1개와 허무 차원에 속한 문항 1개)을 추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다음으로 죽음의 의미에는 하위범주인 죽음의 긍정적 의미에 속하는 자연, 해방 및 집대성 차원과 또 하나의 하위범주인 죽음의 부정적 의미에 속하는 좌절, 충격 및 허무 차원 등 총 6개의 하위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요인의 수를 6으로 지정하여 최대우도법에 의한 사각 회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도한 대로 상당히 분명한 6요인 구조를 얻었다. 단 준거3에 미치지 못한 한 개의 문항(허무 차원에 속한 문항)이 있어서 그 문항을 제외시켜 다시 동일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35개의 죽음의 의미 측정 문항들에 대한 구조 계수 행렬(structure matrix)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음의 의미는 여섯 가지 요인, 즉 제 1 요인인 해방 요인, 제 2 요인인 좌절 요인, 제 3 요인인 충격 요인, 제 4 요인인 집대성 요인, 제 5 요인인 허무 요인, 제 6 요인인 자연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의 의미 전체 변량 중에서 제 1 요인은 약 11.2%를, 제 2 요인은 약 9.1%를, 제 3 요인은 약 7.7%를, 제 4 요인은 약 5.5%를, 제 5 요인은 약 4.7%를, 제 6 요인은 약 3.2%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죽음의 의미의 하위범주인 죽음의 긍정적 의미 차원을 측정하는 19문항의 척도와 또 하나의 하위범주인 죽음의 부정적 의미 차원을 측정하는 16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척도에는 3개씩의 하위척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죽음의 긍정적 의미 척도는 해방 집대성 및 자연 차원을 측정하는 6문항, 6문항, 7문항의 하위척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죽음의 부정적 의미 척도는 좌절, 충격 및 허무 차원을 측정하는 6문항, 5문항, 5문항의 하위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점수는 해당 문항 점수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죽음의 긍정적 의미 척도와 죽음의 부정적 의미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77과 .72로 나타났다. 죽음의 긍정적 의미와 죽음의 부정적 의미간에는 상관이 없었다($r = -.08, m$). 또 하위척도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해방 척도 .84, 집대성 척도 .77, 자연 척도 .70, 좌절 척도 .79, 충격 척도 .74, 그리고 허무 척도 .70으로 나타났다.

죽음불안

죽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문항들은 모두 준거1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모든 문항이 추

표 3. 죽음의 의미 문항의 구조 계수 행렬

문항	M (SD)	요인 1 해방	요인 2 좌절	요인 3 충격	요인 4 집대성	요인 5 허무	요인 6 자연
죽는다는 것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08 (1.53)	.797					
죽음이란 더 이상 현실 속에서 슬픔이나 고통 따위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3.44 (1.57)	.746			-.282		
죽음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이다.	3.44 (1.68)	.714	-.233	-.206			
죽음이란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의 탈출구다.	2.76 (1.47)	.668			-.236		
죽으면 인생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3.03 (1.66)	.651				.285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4.27 (1.52)	.550					
죽어 버리면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추구할 수 없게 된다.	4.16 (1.69)		.741				
죽어 버리면 더 이상 희망을 실현할 수 없다.	4.26 (1.83)		.683				
죽어 버리면 자신의 힘을 십분 살릴 수 없게 된다.	4.59 (1.45)		.661				
지금 죽는다면 나의 모든 가능성을 시험하지 않은 채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5.19 (1.57)		.615	.283			
죽음은 나의 잠재적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건이다.	3.55 (1.91)		.561				.236
죽음은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잔인한 적이다.	2.93 (1.45)		.536				.347
지금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다.	6.27 (1.03)			.757			
나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R)	6.05 (1.15)			.697			-.208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해도 가족들은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다. (R)	5.73 (1.52)			.661			
만약 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다면 가족들은 큰 충격을 입게 될 것이다.	6.08 (1.24)			.617			
한 사람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의미한다.	4.87 (1.42)		.240	.433			
죽음이란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인생 최후의 시험이다.	3.82 (1.50)				-.695		
죽음이란 삶의 완성이다.	3.16 (1.57)	.267			-.628		
죽음은 훌륭하게 해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4.39 (1.51)				-.621		
죽음이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집대성이다.	3.40 (1.55)				-.602		
죽음이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나타내는 기회다.	3.96 (1.51)				-.544		
인생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4.84 (1.43)				-.527		
누군가가 죽었다고 해서 세계가 변하는 일은 없다.	4.20 (1.66)					.687	
어떤 사람이 죽어도 그 주변 상황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3.88 (1.66)					.674	
사람은 죽으면 결국 잊혀지게 되기 마련이다.	4.64 (1.66)		.235			.509	
사회전체에서 보면 사람의 죽음 따위는 하찮은 일이다.	3.73 (1.84)					.500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흔적은 그 사회 속에 오래 남아 있지 못한다.	3.88 (1.48)	.225				.499	
죽음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측면이다.	5.81 (1.12)						-.688
죽음이란 인생의 흐름의 일부분이다.	5.79 (1.05)						-.661
죽음이란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삶의 한 단면이다.	5.98 (1.01)						-.618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비정상적인 사태다. (R)	5.60 (1.30)						-.505
죽음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다.	6.14 (1.03)						-.427
인간의 죽음은 대자연의 일부현상일 뿐이다.	5.40 (1.36)					.266	-.389
사람의 생사는 순리에 따른 것이다.	4.97 (1.41)						-.377
고 유 근		3.91	3.18	2.68	1.94	1.64	1.13
총 변산 비율		11.2%	9.1%	7.7%	5.5%	4.7%	3.2%
요인 평균		3.34	4.11	5.80	3.93	4.07	5.67
(표준편차)		(1.18)	(1.16)	(0.91)	(1.03)	(1.13)	(0.72)

주. 구조 계수 .20 미만은 생략함. (R)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후 분석에 투입되었다. 다음으로 죽음불안을 단일 차원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요인의 수를 1로 지정하여 최대우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초 고유값이 1을 넘는 요인이 2개이었으나(제 1 요인: 4.28, 제 2 요인: 1.19), 제 1 요인과 제 2 요인 사이에서 고유값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과 죽음불안 전체 변량 중에서 제 1 요인이 약 42.8%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요인의 수를 1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얻어진 10개의 죽음불안 측정 문항들에 대한 요인 부하 행렬(factor matrix)을 표 4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죽음불안 차원을 측정하는 10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 점수는 해당 문항 점수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죽음불안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죽음관여도

죽음관여도의 각 하위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문항들은 모두 준거 1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모든 문항이 추후 분석에 투입되었다. 다음으로 죽음관여도 차원에는 죽음관심과 죽음수용(역채점 문항들로 측정됨)이라는 2개의 하위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요인의 수를 2로 지정하여 최대우도법에 의한 사각 회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도한 대로 상당히 분명한 2요인 구조를 얻었다. 단 준거 3에 미치지 못한 두 개의 문항(죽음수용 차원에 속한

표 4. 죽음불안 문항의 요인 부하 행렬

문 항	M (SD)	요인 1 죽음불안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불안해진다.	3.29 (1.47)	.740
나는 죽음에 대해 그다지 거부감이 없다. (R)	3.45 (1.48)	.717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긴장되어 기분이 안 좋아진다	3.15 (1.42)	.709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 아니다. (R)	3.60 (1.53)	.702
나는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R)	4.05 (1.61)	.686
나는 죽음이 두렵다.	4.28 (1.74)	.679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2.69 (1.33)	.644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	3.19 (1.54)	.623
죽음이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다. (R)	3.72 (1.51)	.576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R)	4.66 (1.46)	.396
고 유 근		4.28
총 변산 비율		42.8 %
요인 평균		3.61
(표준편차)		(1.04)

주. (R)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표 5. 죽음관여도 문항의 구조 계수 행렬

문 항	M (SD)	요인 1 죽음관심	요인 2 죽음수용
나는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4.38 (1.50)	.829	.393
나는 죽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4.53 (1.53)	.793	.365
나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	3.45 (1.53)	.768	.365
죽음이라는 주제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4.16 (1.50)	.721	.368
나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본다.	4.36 (1.57)	.652	.262
나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4.76 (1.51)	.646	.293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다. (R)	4.47 (1.50)	.389	.857
자신의 죽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의 하나다. (R)	4.11 (1.57)	.213	.701
나는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의식하고 싶지 않다. (R)	3.60 (1.50)	.453	.649
죽음은 남의 일이다. (R)	5.64 (1.28)	.205	.351
고 유 근		3.93	1.15
총 변산 비율		39.3 %	11.5 %
요인 평균		4.27	4.45
(표준편차)		(1.20)	(1.07)

주. (R)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문항이 있어서 그 문항을 제외시켜 다시 동일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10개의 죽음관여도 측정 문항들에 대한 구조 계수 행렬 (structure matrix)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음관여도는 두 가지 요인, 즉 제 1 요인인 죽음관심 요인과 제 2 요인인 죽음수용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관여도 전체 변량 중에서 제 1 요인은 약 39.3%를, 제 2 요인은 약 11.5%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충분히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죽음관여도를 측정하는 10문항의 척도와 하위차원인 죽음관심과 죽음수용을 측정하는 6문항과 4문항의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 점수는 해당 문항 점수들의 평균값을 산출하

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죽음관여도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또 하위척도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죽음관심 척도 .87, 죽음수용 척도 .72로 나타났다. 또 죽음관심과 죽음수용간에는 .41($p < .01$)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존중의지

생명존중의지의 각 하위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문항들은 모두 준거1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모든 문항이 추후 분석에 투입되었다. 다음으로 생명존중의지 차원에는 자살억제의지와 중절억

제의지 및 장기기증의도라는 3개의 하위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요인의 수를 3으로 지정하여 최대우도법에 의한 사각 회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도한 대로 상당히 분명한 3요인 구조를 얻었다. 요인 분석의 결과 얻어진 12개의 생명존중의지 측정 문항들에 대한 구조 계수 행렬(structurematrix)을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생명존중의지 문항의 구조 계수 행렬

문항	M (SD)	요인 1 장기기증 의도	요인 2 중절의지	요인 3 자살의지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	5.39 (1.51)	.923		
내가 만약 뇌사(腦死)상태가 된다면, 장기이식을 위해 장기를 기증해도 좋다.	5.30 (1.61)	.905		
나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할 것이다.	3.32 (1.45)	.503		
만약 내가또는 나의 배우자나 애인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임신하게 된다면, 인공임신중절을 할(권할) 것이다. (R)	4.70 (1.89)		.828	.303
만약 내가또는 나의 배우자나 애인이 학업이나 직업의 관계상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인공임신중절을 할(권할) 것이다. (R)	3.92 (1.95)		.790	.325
만약 내가또는 나의 배우자나 애인이 임신했을 때 태아진단의 결과 태아에게 중대한 장애나 유전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인공임신중절을 할(권할) 것이다. (R)	3.39 (1.77)		.658	.317
앞으로 내가또는 나의 배우자나 애인이 원하지 않는 성(性)의 태아를 임신하게 된다면, 인공임신중절을 할(권할) 것이다. (R)	5.39 (1.90)		.486	
나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자살이라는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R)	5.03 (1.90)		.250	.791
앞으로 나에게 극심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살을 선택하진 않겠다.	5.54 (1.69)			.711
내가 만약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자살을 선택할 지도 모른다. (R)	5.00 (1.80)		.222	.706
나는 고통스러운 불치의 병에 걸려도 자살은 하지 않겠다.	4.39 (1.88)		.228	.526
인간에게는 자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3.63 (1.97)		.323	.515
고 유 근		2.10	2.75	1.31
총 변산 비율		17.5 %	23.0 %	10.9 %
요인 평균		4.66	4.35	4.72
(표준편차)		(1.30)	(1.46)	(1.35)

주. 구조 계수 .20 미만은 생략함. (R)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존중의지는 세 가지 요인, 즉 제 1 요인인 장기기증의지 요인과 제 2 요인인 중절억제의지 요인 그리고 제 3 요인인 자살억제의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존중의지 전체 변량 중에서 제 1 요인은 약 17.4%를, 제 2 요인은 약 22.9%를, 제 3 요인은 약 10.9%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생명존중의지 차원을 측정하는 1문항의 척도와 하위차원인 장기기증의지, 중절억제의지, 및 자살억제의지를 측정하는 3문항과 4문항 및 5문항의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 점수는 해당 문항 점수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명존중의지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또 하위척도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장기기증의지 척도 .80, 중절억제의지 척도 .77, 자살억제의지 척도 .78로 나타났다.

사생관의 하위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한국 대학생들이 갖는 사생관의 전체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사생관 척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유형을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즉, 각 하위차원에 관해서 긍정하는 사람(척도 점수가 4.5이상인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척도 점수가 3.5이하인 사람) 및 중간반응을 보인 사람(척도 점수가 3.5보다 크고 4.5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았다(표 7 참조).

한국 대학생들은 대체로 내세지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45.4%) 현세회귀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57.7%). 즉 죽은 후에도 인간의 삶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후

세계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견해는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었으나, 죽으면 현세로 다시 태어나거나 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는 부정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죽음이란 소멸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며($M = 5.30$), 인간의 육체는 죽어서 썩어 버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M = 4.78$)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며($M = 4.69$), 죽은 후에는 아주 아름다운 세계($M = 4.24$), 더 좋은 세계($M = 4.29$),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는 세계($M = 4.39$)에 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현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세의 삶을 결정하는 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하며($M = 4.23$), 현세에서의 선행이나 악행이 사후세계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M = 4.94$).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 다시 태어나고 그러한 과정을 반복한다는 견해($M = 3.61$)나 사후세계의 존재들과 현세의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M = 3.82$) 사후세계의 사람들이 후손이나 돕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M = 3.65$) 반대로 원한이 강한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한을 푸는 경우가 있다($M = 3.57$)는 견해를 믿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였다. 또한 땅에 묻힌 조상의 뼈가 그 땅의 좋은 생기를 받으면 자손이 번성하지만($M = 3.34$) 조상들의 묘 자리가 안 좋을 경우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견해($M = 3.11$)와 조상들이 세운 공덕이 많으면 후손들이 큰 고생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M = 3.46$)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후손들이 죄를 갚아야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된다는 견해($M = 2.82$)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대다수는 인간의 죽음은 대자연의 일부현상으로서 생명의 자연스

표 7. 하위요인별 반응유형 분포($N = 579$)

하위요인	M	(SD)	부정 (3.5 이하)	중간 (3.5보다 크고 4.5 미만)	긍정 (4.5 이상)
내세지향성	4.44	(1.12)	15.4%	39.2%	45.4%
현세회귀성	3.14	(1.07)	57.7%	34.7%	7.6%
죽음의 긍정적 의미	4.38	(0.63)	7.4%	53.0%	39.6%
해방	3.34	(1.18)	63.6%	18.1%	18.3%
집대성	3.93	(1.03)	35.9%	34.0%	30.1%
자연	5.67	(0.72)	.3%	5.4%	94.3%
죽음의 부정적 의미	4.63	(0.68)	5.7%	33.0%	61.3%
좌절	4.11	(1.16)	30.2%	30.8%	39.0%
충격	5.80	(0.91)	2.1%	7.2%	92.8%
허무	4.07	(1.13)	32.8%	32.0%	35.2%
죽음불안	3.61	(1.04)	48.2%	30.0%	21.8%
죽음관여도	4.34	(0.98)	21.2%	34.4%	44.4%
죽음관심	4.27	(1.20)	27.6%	27.1%	45.3%
죽음수용	4.45	(1.07)	23.1%	27.0%	49.9%
생명존중의지	4.58	(0.95)	13.0%	32.9%	44.1%
장기기증의도	4.66	(1.30)	17.1%	20.4%	62.5%
자살억제의지	4.72	(1.35)	19.0%	25.2%	55.8%
중절억제의지	4.35	(1.46)	30.6%	20.2%	49.2%

러운 측면이자 삶의 자연스러운 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었으며(94.3%), 죽음은 그 사람의 가치와 인생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회이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집대성이라고 보는 사람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30.1%). 그러나 죽음이 인생의 책임이나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18.3%). 또한 대학생들의 대다수는 한 사람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었으며(92.8%), 죽음

은 자기실현과 성공을 방해하는 적이며 인생의 좌절을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39.0%)과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이나 흔적이 허무하게 사라진다고 보는 사람(35.2%)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한국 대학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긴장되어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21.8%). 또한 죽음이라는 주제를 기피하는 사람은 비교

적 적은 편이었으며(23.1%),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포함하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45.3%).

마지막으로 생명존중의지와 관련하여, 한국 대학생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해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으나($M = 3.32$), 자신이 만약 죽게 된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았다($M = 5.39$). 또한 인간에게는 자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았으나($M = 3.63$), 자신의 경우 극심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살을 선택하진 않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M=5.54$). 임신중절과 관련된 사정에 대해서, 앞으로 원하지 않는 성(性)의 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할(또는 권할) 것이라는 사람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M = 5.39$, $M = 4.70$), 학업이나 직업의 관계상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인공임신중절을 할(또는 권할) 것이라는 사람이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M = 3.92$), 상당수의 사람들은 태아진단의 결과 태아에게 중대한 장애나 유전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인공임신중절을 할(또는 권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M = 3.39$).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세관 특성의 하위 차원으로 서 ‘내세신앙’, ‘이상세계’, ‘윤회사상’, ‘영혼의 영향’, ‘인과응보론’, ‘조상의 영향’이라는 6가지 차원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내세관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을 요인분

석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내세관 특성은 2 요인 구조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즉, 윤회사상과 영혼의 영향 및 조상의 영향 차원에 속할 것으로 예상한 15개의 문항들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요인과 내세신앙과 이상세계 및 인과응보론 차원에 속할 것으로 예상한 13개의 문항들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제 2 요인이 추출되었다. 현세와 내세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차원인 제 1 요인은 ‘현세회귀성’ 요인이라고 명명되었고 내세를 행복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간주하는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차원인 제 2 요인은 ‘내세지향성’ 요인이라고 명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세관 특성에 포함된 여러 차원들은 결국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차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현세회귀성은 사람이 죽으면 환생할 기회가 있다고 보는가와 조상이나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현세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차원이고, 현세회귀성이 높은 사람은 죽으면 현세로 다시 태어나거나 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현세회귀성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윤회사상과 죽은 자가 양화를 일으킨다는 생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가네코(金兒, 1997)의 ‘영혼관념’ 차원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과 윤회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단계(丹下, 1999)의 ‘사후생활의 존속에 대한 신념’ 차원, 그리고 이케구치(池口, 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영혼, 사후세계, 윤회, 죽은 자의 영향력 등에 대한 믿음이 혼합된 차원 등 일본인의 내세관을 나타내는 차원들과 유사하지만, 사후세계를 믿는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조상의 영향

에 대한 신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차원은 주로 불교, 유교, 풍수사상, 및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내세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대학생들의 인지구조 속에서는 각 요소들이 변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내세지향성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는가와 사후세계의 존재양상이 이상적이라고 보는가와 사후세계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차원이고, 내세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후세계의 존재를 강하게 믿고 죽은 후에도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세지향성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긍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Osarchuk 등(1973)의 '내세신앙' 차원과 사후세계에서의 존재양상을 행복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Spilka 등(1977)의 '이상세계' 차원 및 현세에서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사후세계에서 보상이나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긍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누미야 등(2001)의 '인과응보론' 차원을 모두 포함한 차원이다. 이 차원은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특히 기독교가 강조하는 내세관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현세회귀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의 인지구조 속에서는 각 요소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의 문화심리학적 특징에 관해, 현세회귀성을 동양적 내세관 특성이라고 간주하고, 내세지향성을 서양적 내세관 특성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현세회귀성은 동양적 내세관 특성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을 양극으로 하는 차원이며, 높은 현세회귀성은 동양적 특징을 나타내고 낮은 현세회귀성은 서양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현세회귀성은 불교, 유교, 풍수사상, 및 무속신앙에서 볼 수 있는 동양적 내세관의 특징을 나타내며 현세와 내세의 밀접한 관계와 현세에서의 삶의 복수성(複數性)을 함축하는 신념을 의미하는 반면, 낮은 현세회귀성은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서양적 내세관의 특징을 나타내며 현세와 내세의 단절과 현세에서의 삶의 일회성(一回性)을 함축하는 신념을 의미한다. 한편 내세지향성은 인류에 보편적인 내세관 특성 차원이며, 높은 내세지향성은 인간존재의 영원성과 현세에 대한 내세의 우월성을 믿는 종교적 특징을 나타내고 낮은 내세지향성은 그러한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비종교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 유형에 따른 현세회귀성의 수준 차이를 알아본 결과, 종교 유형에 따라 현세회귀성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F(3, 568) = 35.16, p < .001$. 각 유형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사후비교를 한 결과, 불교인($M = 3.78$)은 무종교인($M = 3.25$)보다 현세회귀성이 높은 반면, 개신교인($M = 2.50$)은 무종교인보다 현세회귀성이 낮았다. 천주교인($M = 3.50$)은 현세회귀성에 있어 불교인 및 무종교인과는 차이가 없었으나 개신교인보다는 현세회귀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적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 현세회귀성이 높아지고 서양적 종교라 할 수 있는 개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 현세회귀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종교 유형에 따른 내세지향성의 수준 차이를 알아본 결과, 종교 유형에 따라 내세지향성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F(3, 568) = 83.02, p < .001$. 각 유형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사후비교를 한 결과, 개신교인($M = 5.35$), 천주교인($M = 4.53$), 불교인($M = 4.34$)은 모두 무종교인($M = 3.89$)보다 내세지향성이 높았

고, 특히 개신교인의 내세지향성은 천주교인과 불교인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류와 상관없이 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 내세지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화수준의 요인분석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세관 특성의 각 하위차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좀더 많았더라면 상정한 하위차원들이 모두 구분되었을지도 모른다. 연구자가 상정한 하위차원을 무너뜨린 것은 보다 정교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척도들은 최종적으로 요인분석 결과에 의거해서 하위차원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로 요약된 하위차원만으로 만족하고 더 세부적인 하위차원들을 구성하는 일은 포기했다. 여기서 당초의 이론적 가정을 더 중요시하여 그대로 여섯 가지의 하위차원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세관 특성들 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변인들을 하나의 경로 모형에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할 경우 해석의 어려움이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념적 관련성과 상관관계에 근거한 이러한 내세관 특성들의 통합은 모형의 간명성에 치중한다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죽음의 의미 범주는 의미내용상 크게 두 가지의 하위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죽음의 긍정적 의미 차원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부정적 의미 차원이다. 죽음의 긍정적 의미 차원은 해방, 집대성 및 자연이라는 3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죽음의 부정적 의미 차원은 좌절, 충격 및 허무라는 3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죽음의 긍정적 의미 차원은 죽음이 인생의

책임이나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와 죽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집대성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한 측면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죽음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인간의 죽음이 개인적인 고통이나 책임의 소멸을 의미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와 인생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인간의 죽음이 대자연의 일부 현상으로서 생명의 자연스러운 측면이라고 보면서 죽음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해석하는 사람이다. 한편 죽음의 부정적 의미 차원은 죽음이 인생의 좌절을 의미한다고 보는가와 한 사람의 죽음이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보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향이나 흔적은 쉽게 사라진다고 보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죽음에 대해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죽음이 개인적으로는 자기실현과 성공을 방해하는 적이며 가족들에게는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이고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이나 흔적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해석하는 사람이다.

죽음관여도에 관해, 역채점 문항들이 다른 요인(죽음수용)으로 묶여 나왔는데 이것은 방법론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진정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관여도를 죽음수용과 죽음관심의 2 요인으로 본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근거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도 두 가지의 개념이 있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동기적 측면에 관해, 긍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죽음 인지도(권혜진, 1980), 죽음에 대한 사고의 빈도(장휘숙, 2000), 죽음에 대한 사색성(丹下, 1995) 등으로 개념화하

는 경우와 부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죽음 회피(Wong et al., 1994), 무관심과 도피(金兒, 1996) 등으로 개념화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동기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죽음관여도를 설정하고, 긍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춘 차원은 죽음관심이라고 칭하기로 하고, 부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춘 차원은 죽음회피라고 하지 않고 죽음관심과 방향을 맞추기 위해 죽음수용이라고 명명하기로 한 것이다. 죽음수용은 자신의 죽음을 위시한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회피하는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한편 죽음관심은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며 실제로 생각이나 상상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죽음수용이 죽음관심의 전제가 되기는 하지만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회피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그 주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죽음수용과 죽음관심간의 상관($r = .41$)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결과는 죽음관심과 죽음수용을 단일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차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죽음수용(에 해당되는 변인들)과 죽음관심(에 해당되는 변인들)이 죽음불안과 상반되는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었다. 즉,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는 사람(죽음수용이 낮은 사람)일수록 죽음불안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金兒, 1996; Knight et al., 2000)가 있는 반면, 죽음에 대한 사고의 빈도가 높은 사람(죽음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죽음불안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장휘숙, 2000)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도 죽음관심과 죽음수용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죽음관여도를 죽음수용과 죽음관심의 2 요인으로 구분한 것이다.

내세관 특성 이외의 차원들, 즉 죽음의 의미(해방, 자연, 집대성, 좌절, 충격, 허무), 죽음불안, 죽음관여도(죽음수용, 죽음관심), 생명존중의지(자살억제의지, 중절억제의지, 장기기증의지)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예상했던 하위차원들이 요인분석을 통해서 추출되어 내적 일관성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생관 척도의 요인 구조 확인에 있어 대학생 표집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 집단이 전체 성인 인구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연구의 결과만 가지고 일반 성인 집단의 사생관 척도 요인 구조가 대학생 집단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 학력, 경험 및 종교 유형 등의 조건을 달리하는 집단의 경우 내세관 특성과 같은 개념에 있어 상이한 요인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 성인 집단을 연구에 포함시킨 보다 광범위한 척도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내세관 특성, 죽음에 대한 해석, 정서, 관여도 및 생명존중의지를 개념적인 중복이 없는 차원으로서 개념화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의 전체적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 있다. 내세관,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생명존중의지의 세 범주와 14개의 하위차원을 포함한 사생관 척도는 기존의 관련 척도들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한 것이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의 의미, 죽음인지도, 죽음의 이미지, 죽음의 수용도, 내세관, 자살관, 주변인물의 죽음에 대한 회상 등을 다루어 왔던 기존의 척도들은 포괄성이 충분하지 않거나(Meadow & Kahoe, 1984) 각기 제작자가 다르기 때문에 개념의 범위가 중복되어 있었고, 개념

적 정의를 하지 않고 요인분석에만 의거해서 차원을 나누는 바람에 타당성이 부족한 차원을 포함하고 있었으며(金兒, 1996; 丹下, 1999), 문화적 전통의 차이 때문에 내세관과 관련된 차원을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웠고(金兒, 1996; 丹下, 1995; Spilka et al., 1977), 충분한 개념적 정리 없이 간략한 조작적 정의만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동일한 명칭을 가진 개념의 내용이 연구자마다 상이한 경우도 있었으며 여러 문항들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종합적인 사생관 척도가 개발되었다.

내세관 특성(내세지향성, 현세회귀성), 죽음의 의미(해방, 자연, 집대성, 좌절, 충격, 허무), 죽음불안, 죽음관여도(죽음수용, 죽음관심), 생명존중의지(자살억제의지, 중절억제의지, 장기기증의지) 등의 개념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를 재정립함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생관의 내부구조를 밝힐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일부 요소(예컨대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등)와의 관계만이 연구가 가능했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적응 및 심리 사회적 발달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사생관 전반에 걸쳐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사생관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적응에 취약성을 보이는 사생관 프로파일을 특정할 수 있게 되면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 이외에도 사생관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위험감수(risk taking) 행동, 폭력 등을 내세관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여러 차원으로 설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도 가능해졌다.

분석 2.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내세관 특성,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생명존중의지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사생관 척도의 다당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 간에 예상되는 관계를 종합하여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적 관계

내세관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

분석 1에서 내세관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윤회사상과 영혼의 영향 및 조상의 영향 차원에 속할 것으로 예상한 15개의 문항들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요인은 '현세회귀성' 요인이라고 명명되었고, 내세신앙과 이상세계 및 인과응보론 차원에 속할 것으로 예상한 13개의 문항들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제 2 요인은 '내세지향성' 요인이라고 명명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내세관 특성에 포함된 여러 차원들은 결국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세회귀성은 사람이 죽으면 환생할 기회가 있다고 보는가와 조상이나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현세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현세회귀성이 높은 사람은 죽으면 현세로 다시 태어나거나 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내세지향성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는가와 사후세계의 존재양상이 이상적이라고 보는가와 사후세계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는가

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내세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후세계의 존재를 강하게 믿고 죽은 후에도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죽은 후에도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후세계에서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전망을 가지게 되면 죽음은 현세에서 내세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현세에서의 삶을 매듭짓고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자연스럽고 중요한 기회라는 측면이 부각될 것이다. 현세에서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사후세계에서 보상과 처벌을 받는다면 인생 전체는 그 사람에 대한 시험기간인 셈이며 죽음도 그러한 삶의 완성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훌륭하게 해내야 하는 중요한 최종 시험으로 인식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이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연속된다는 확신은 죽음에 대해 영원한 삶의 한 과정으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심리적인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념은 죽음이 인생의 좌절을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을 완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후세계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면 죽음은 일시적인 중단일 수는 있으나 완전한 좌절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인생의 좌절을 의미한다는 시각이 완화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충격에 대한 평가 또한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내세지향성은 죽음불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죽음이 자기소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나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는 자신의 죽음을 포함한 죽음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불안이 증폭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아름답고 정의로운 이상적 세계로 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불안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사후세계와 사후의 생명에 대한 신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후세계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 죽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쉽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고 있으면 죽음은 자기소멸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어할 것이고 별로 생각해야 할 의의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요약하면 내세지향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로 표현될 것이다.

가설 1: 내세지향성은 죽음의 긍정적 의미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내세지향성은 죽음의 부정적 의미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내세지향성은 죽음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내세지향성은 죽음관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 현세로 다시 태어나거나 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인 현세회귀성은 죽음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극적으로 전환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자아 정체감의 연속성을 회구하는 욕구에 저촉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불안이 강해질 것이다. 죽은 자들의 영향을 믿는 것도 그것이 부정적 영향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불안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세회귀성과 죽음불안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 5: 현세회귀성은 죽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죽음의 의미와 죽음불안 및 죽음관여도의 관련성

죽음불안의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된 죽음의 개인초월적 귀결로서의 내세관뿐만 아니라 죽음의 개인내적 귀결과 대인적 귀결도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의 죽음이 대자연의 일부현상으로서 생명의 자연스러운 측면이라고 보고 동시에 그 사람의 가치와 인생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나 죽음이 인생의 책임이나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죽음과 관련된 불안이 약할 것이고, 죽음이 개인적으로는 자기실현과 성공을 방해하는 적이며 가족들에게는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죽음과 관련된 불안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의미에 의해 억제되고 부정적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촉진되는 죽음과 관련된 불안은 죽음관여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위시하여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과 연합된 정서를 활성화시킬텐데 죽음과 관련된 불안이 강한 사람은 그러한 부정적 정서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는 죽음불안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효과도 죽음관여도에 대해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 주제는 피하려고 하고 긍정적 의미를 갖는 주제에는 접

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죽음의 의미와 죽음불안 및 죽음관여도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로 표현될 것이다.

가설 6: 죽음의 긍정적 의미는 죽음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7: 죽음의 부정적 의미는 죽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8: 죽음불안은 죽음관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9: 죽음의 긍정적 의미는 죽음관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0: 죽음의 부정적 의미는 죽음관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내세관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생명존중의지에 대한 영향

생명존중의지는 자살억제의지와 중절억제의지 및 장기기증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기자신이나 자신의 연장으로서의 태아 그리고 타자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부로 생명을 끊지 않겠다는 의지와 생명이 위독한 타자를 위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도 좋다는 의도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태도다. 이러한 생명존중의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여러 측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집대성이며 자신의 가치와 인생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자연스러운 삶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죽음이 그러한 시험과 같은 것도 아니고 또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보는 사람보다 생명존중의지가 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자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임신중절은 자연스럽지 못한 인공적인 행위인 반

면에 장기기증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져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죽음이 인생의 집대성도 아니고 최후의 시험도 아니라면 함부로 생명을 끊지 않겠다는 규범적인 의지의 기반이 그만큼 적어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해결방식으로서 자살이나 임신중절과 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굳이 장기기증의사를 밝힐 필요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과 타자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찾으려는 태도는 죽음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생내지 생명에 대한 사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사색은 생명의 존귀성에 대한 통찰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고, 생명의 존귀성에 대한 인식은 생명존중의지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로 요약된다.

가설 11: 죽음의 긍정적 의미는 생명존중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죽음관여도는 생명존중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죽은 후에도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후세계에서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념인 내세지향성은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현세에서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사후세계에서 보상과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인과응보론이 포함되어 있다. 죽음이 자기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이 관철되는 내세로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살이나 임신중절을 억제하려는 의지는 강해질 것이며 타자를 살리기 위한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의도도 강해질 것이다.

죽으면 현세로 다시 태어나거나 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인 현세회귀성은 현세에서의 삶의 복수성(複數性)을 함축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현세에서의 삶의 일회성을 강조하는 경우보다 현세에서의 삶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세의 삶에 고집할 필요성이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내세관 특성과 생명존중의지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로 표현될 것이다.

가설 13: 내세지향성은 생명존중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4: 현세회귀성은 생명존중의지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설적 관계를 종합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내세관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생명존중의지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모형은 지정의(知情意)라는 마음의 세 가지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지(知)→정(情)→의(意)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영향이 파급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지(知)는 정(情)에 영향을 주고 지(知)와 정(情)이 합쳐져서 의(意)를 규정한다. 여기서 지적 요소는 내세관 특성과 죽음의 의미이고 정적 요소는 죽음불안이며, 의적 요소는 죽음관여도와 생명존중의지를 의미한다. 둘째, 이 모형에서는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점이나 태도는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점이나 태도를 규정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내세관은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현세의 삶의 끝을 의미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규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죽음의 의미,

그림 1. 내세관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생명존중의지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

죽음불안, 죽음관여도는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자살, 임신중절, 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죽음 등의 특수한 죽음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생명존중의지를 규정한다고 보았다. 셋째, 이 모형은 한 시점에서의 사생관에 포함되는 하위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대하여 표현한 것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방 법

조사 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 강원, 충남 지역 소재 5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579명(남 244명, 여 335명; 평균 연령 21.52세; 불교 55명, 천주교 83명, 개신교 159명, 기타 종교 7명, 무종교 275명;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경험 유 125명, 무 454명; 가까운 사람의 죽음 경험 유 385, 무 194명; 자살염려 경험 유 191명, 무 388명; 종교적 위기 경험 유 132명, 무 447명; 죽음에 대한 사색 경험 유 381명, 무 198명; 사후세계에 대한 사색

경험 유 367명, 무 212명; 장기기증등록 유 24명, 무 5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는 수업 장면에서 단체로 실시하였는데,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사이였다.

조사 도구

본 분석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분석 1에서 제작된 3가지 주요 범주에 속한 14개의 하위 척도와 2가지의 부가적인 범주에 속한 11개의 단일 문항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범주에 속한 하위 척도들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우선 내세관

특성에 속하는 내세지향성과 현세회귀성 차원을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 범주에는 하위범주인 죽음의 의미에 속하는 집대성, 자연, 충격, 좌절, 허무, 및 해방의 6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와 하위범주인 죽음불안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 및 하위범주 죽음관여도에 속하는 죽음관심과 죽음수용의 2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 등 총 9개의 하위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로 생명존중의지 범주에는 자살억제의지, 중절억제의지, 장기기증의지 등 모두 3개의 하위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는 죽음 관련 경험 범주

표 8.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수($N = 579$)

하위 척도명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내세지향성	13	4.44	(1.12)	.92
현세회귀성	15	3.14	(1.07)	.94
죽음의 긍정적 의미	19	4.38	(0.63)	.77
해방	6	3.34	(1.18)	.84
집대성	6	3.93	(1.03)	.77
자연	7	5.67	(0.72)	.71
죽음의 부정적 의미	16	4.63	(0.68)	.72
좌절	6	4.11	(1.16)	.79
충격	5	5.80	(0.91)	.75
허무	5	4.07	(1.13)	.71
죽음불안	10	3.61	(1.04)	.88
죽음관여도	10	4.34	(0.98)	.85
죽음관심	6	4.27	(1.20)	.88
죽음수용	4	4.45	(1.07)	.73
생명존중의지	12	4.58	(0.95)	.77
장기기증의지	3	4.66	(1.30)	.81
자살억제의지	5	4.72	(1.35)	.78
중절억제의지	4	4.35	(1.46)	.78

로서 질병·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 자살염려, 종교적 위기, 죽음에 대한 사색, 사후세계에 대한 사색, 장기기증등록 등의 경험 유무를 측정하는 7개의 단일 문항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적 변인 범주에는 나이, 성별, 병역, 종교 등 자료 분류와 관계된 기초적인 사항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8에 정리하였다. 모든 변인들이 비대칭도(skewness)와 첨도(kurtosis)가 절대치로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단일변량 정규분포를 벗어 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자료 분석 절차

연구 모형에 포함된 여러 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를 검토하여 변인들간의 체계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AMOS 4를 이용하여 선형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일반 부합치(GFI), 조정 부합치(AGFI), 비교 부합치(CFI), 원소간 평균차이(RMR), 원소간 근접오차(RMSEA)를 함께 사용하였다. 모수 추정 방식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각 모형에 포함된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 상관 분석 및 각종 기초 통계치를 구하기 위해서 SPSS 10.0을 사용하였다.

결 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내세관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생명존중

의지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그림 2 참조)의 전반적 부합도와 경로계수를 분석했다.

AMOS 분석의 결과,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표 9와 같이 산출되었으며, 각 경로별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표 10에 제시했다. 연구변인간 상관계수는 부록 1에 제시했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들은 대부분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우선 GFI와 AGFI 및 CFI는 각각 .981, .912, .939로 일반적인 수용 준거 값인 .9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MRE도 .044로 역시 일반적인 수용 기준 값인 .05보다 작은 값이었다. 다만 RMSEA는 일반적인 수용 준거 값인 .08을 초과하는 .100이었다. 요약하면, RMSEA는 가설적 구조 모형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RMSEA를 제외한 나머지 부합도 지수들은 가설적 구조 모형이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 제시한 변인들간의 가설적 관계가 경로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났는지 확인하였다.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선 내세지향성은 죽음의 긍정적 의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beta = .24, p < .01$, 죽음의 부정적 의미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26, p < .01$. 즉 내세지향성이 높으면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의미 부여가 강해지고, 부정적 의미 부여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 2는 지지되었다. 죽음의 긍정적 의미는 내세지향성에 의해 변량의 5.9%가 설명되고 있었고, 죽음의 부정적 의미는 내세지향성에 의해 변량의 6.9%가 설명되고 있었다.

둘째, 죽음불안의 규정요인에 관해 죽음의 긍정적 의미는 죽음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beta = -.27, p < .01$, 현세희귀성과 죽음의 부정적

그림 2.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

표 9.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지수($N = 579$)

	GFI	AGFI	CFI	RMR	RMSEA
추정치	.981	.912	.939	.044	.100

의미는 죽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15$, $\beta = .38$, $p < .01$. 즉 현세회귀성이 높으면 죽음불안이 높아지고, 또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의미 부여가 강하거나 긍정적 의미 부여가 약하면 죽음불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5, 6, 7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내세지향성은 예상과는 달리 죽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6$, ns . 즉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내세지향성이 죽음불안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는 미치지 않고, 죽음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매개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만을 갖는 것을 시사한다. 죽음불안은 현세회귀성과 죽음의 긍정적 의미 및 죽음의 부정적 의미에 의해 변량의 27.1%가 설명되고 있었다.

셋째, 죽음관여도의 규정요인에 관해, 죽음의

표 10.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 경로계수 추정치($N = 579$)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t 값)	R^2
내세지향성 → 죽음의 긍정적 의미	.243(6.020) **	.059
내세지향성 → 죽음의 부정적 의미	-.262(-6.527) **	.069
내세지향성 → 죽음불안	-.064(-1.685)	
현세회귀성 → 죽음불안	.150(4.206) **	
죽음의 긍정적 의미 → 죽음불안	-.268(-7.316) **	.271
죽음의 부정적 의미 → 죽음불안	.381(10.346) **	
내세지향성 → 죽음관여도	.001(0.982)	
죽음의 긍정적 의미 → 죽음관여도	.356(8.968) **	
죽음의 부정적 의미 → 죽음관여도	-.163(-3.822) **	.166
죽음불안 → 죽음관여도	-.015(0.728)	
내세지향성 → 생명존중의지	.436(11.654) **	
현세회귀성 → 생명존중의지	-.294(-8.114) **	
죽음의 긍정적 의미 → 생명존중의지	-.052(-1.297)	.247
죽음관여도 → 생명존중의지	-.091(-2.329) *	

* $p < .05$, ** $p < .01$

긍정적 의미는 죽음관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beta = .36$, $p < .01$, 죽음의 부정적 의미는 죽음관여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16$, $p < .01$. 즉 죽음에 대해 강하게 긍정적 의미 부여를 하고 있으면, 죽음관여도가 높아지는 반면, 죽음에 대해 강하게 부정적 의미 부여를 하고 있으면, 죽음관여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9, 10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내세지향성 및 죽음불안은 예상과는 달리 죽음관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beta = .00$, $\beta = -.02$, ns , 가설 4, 8은 지지되지 않았다. 죽음관여도는 죽음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에 의해 변량의 약 16.6%가 설명되고 있었다.

넷째, 생명존중의지의 규정요인에 관해, 내세

지향성은 생명존중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beta = .44$, $p < .01$, 현세회귀성은 생명존중의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29$, $p < .01$. 즉 생명존중의지는 내세지향성에 의해 강화되는 반면, 현세회귀성에 의해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3, 14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죽음의 긍정적 의미는 생명존중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5$, ns , 죽음관여도는 예상과는 반대로 생명존중의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9$, $p < .05$. 즉 가설 11, 12는 지지되지 않았다. 생명존중의지는 내세지향성과 현세회귀성 및 죽음관여도에 의해 변량의 약 24.7%가 설명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세지향성과 현세회귀성 사이에는 $r = .09$ ($p < .05$)의

표 11. 죽음의 의미와 생명존중의지 하위차원간의 부분상관 관계

	죽음의 긍정적 의미	해방	집대성	자연	죽음의 부정적 의미	좌절	충격	허무
생명존중의지	-.05	-.16**	.16**	-.06	-.13**	-.08	-.03	-.13**
자살억제의지	-.17**	-.29**	.11*	-.04	.05	.05	.04	.01
중절억제의지	-.03	.08	.03	-.06	-.22**	-.14**	-.03	-.18**
장기기증의도	.13**	.02	.13**	-.05	-.00	-.03	-.05	-.01

* $p < .05$, ** $p < .01$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의 긍정적 의미는 생명존중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1과 죽음관여도는 생명존중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는데, 죽음의 의미, 죽음관여도 및 생명존중의지는 하위차원을 포함하는 변인들이기 때문에 현상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위차원 수준에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가설 11과 가설 12와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먼저 가설 11에서 제시한 죽음의 긍정적 의미와 생명존중의지의 관계를 하위차원 수준에서 검토하기 위해 내세지향성, 현세회귀성 및 죽음관여도 그리고 죽음의 긍정적 의미와 생명존중의지의 나머지 하위차원들을 통제하여 부분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죽음의 부정적 의미와 생명존중의지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이것은 수정 지수(MI: modification index)를 참고한 것이다.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12에서 제시한 죽음관여도와 생명존중의지의 관계를 하위차원 수준에서 검토하기 위해 내세지향성, 현세회귀성, 죽음의 긍정적 의미 및 부정적 의미 그리고 죽음관여도와 생명존중의지의 나머지 하위차원들을 통제하여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생명존중의지의 하위차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중절억제의지는 내세지향성에 의해 강화되고, $r = .23$, $p < .01$ (부록 1 참조), 현세회귀성에 의해 약화될 뿐만 아니라, $r = -.21$, $p < .01$,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으나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의미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r = -.22$, $p < .01$. 죽음의 부정적 의미의 중절억제의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주로 허무 차원과 좌절 차원에 의한 것이었다, $r = -.18$, $r = -.14$, $p < .01$. 다음으로 자살억제의지는 내세지향성에 의해 강화되고, $r = .34$, $p < .01$, 현세회귀성에 의해

표 12. 죽음관여도와 생명존중의지 하위차원간의 부분상관 관계

	죽음관여도	죽음관심	죽음수용
생명존중의지	-.12**	-.12**	-.00
자살억제의지	-.25**	-.24**	-.02
중절억제의지	-.03	-.02	.02
장기기증의도	.14**	.14**	.01

** $p < .01$

해 약화될 뿐만 아니라, $r = -.17, p < .01$, 가설 설정 단계에서의 예상과 달리 죽음의 긍정적 의미와 죽음관심에 의해서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7, r = -.24, p < .01$. 죽음의 긍정적 의미의 자살억제지지에 대한 부적 영향은 주로 해방 차원에 의한 것이었다, $r = -.29, p < .01$. 마지막으로 장기기증의도는 내세지향성에 의해 강화되고, $r = .19, p < .01$, 현세회귀성에 의해 약화될 뿐만 아니라, $r = -.13, p < .01$, 죽음의 긍정적 의미와 죽음관심에 의해서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3, r = .14, p < .01$. 장기기증의도에 대한 죽음의 긍정적 의미의 정적 영향은 주로 집대성 차원에 의한 것이었다, $r = .13, p < .01$.

논 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노인이나 임종환자 등 죽음에 대한 관련성이 높은 특수한 대상들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자살, 임신중절, 장기기증과 같은 청년기와 관련이 깊은 생명윤리에 관한 행동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 청년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 요소인 내세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한국인의 내세관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내세관이나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구조적 관점 없이 기술적 수준의 실태 조사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기 사생관의 전체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즉, 자살, 임신중절, 장

기기증 등의 청년기와 관련이 깊은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그 배경에 있는 내세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밝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종합적인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내세관,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생명존중의지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데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구성개념들을 중첩 없이 측정하는 척도는 없었다. 그러므로 우선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새로운 사생관 척도 제작을 시도하고 신뢰도와 요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새롭게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내세관 특성,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생명존중의지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사생관 척도의 타당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간에 예상되는 관계를 종합하여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거하면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내세관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 죽음의 의미와 죽음불안 및 죽음관여도의 관련성을 차례로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내세관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생명존중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내세관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내세관 특성의 하위 차원으로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의 두 가지 차원을 구별하였다. 이 두 가지 차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현세회귀성은 사람이 죽으면 환생할 기회가 있다고 보는가와 조상이나 사후

세계의 존재들이 현세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현세회귀성이 높은 사람은 죽으면 현세로 다시 태어나거나 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내세지향성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는가와 사후세계의 존재양상이 이상적이라고 보는가 및 사후세계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내세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후세계의 존재를 강하게 믿고 죽은 후에도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세지향성은 죽음의 긍정적 의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의미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세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고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은 후에도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후세계에서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념은 죽음의 개인내적 귀결 가운데서도 특히 죽음을 한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건으로 간주하는 해석(좌절 차원)을 완화시키고, $r = -.29$, $p < .01$, 죽음은 삶의 자연적인 측면이며 시간의 정상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체험이라고 보는 시각(자연 차원)을 강화시키며, $r = .14$, $p < .01$, 죽음의 대인적 귀결에 관해서도 개인의 죽음이 갖는 중요성을 부인하고 사회적으로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허무 차원)를 억제함과 동시에 죽음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라고 여기는 견해(집대성 차원)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r = -.20$, $r = .26$, $p < .01$.

다음으로 내세지향성은 죽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죽음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매개를 거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죽은 후에 아름답고 정의로운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감소된다고 기보하는 그러한 전망이 죽음에 대한 해석의 여러 측면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킨 결과 간접적으로 죽음불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현세회귀성은 죽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죽으면 현세로 다시 태어나거나 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인 현세지향성이 높아지면 죽음불안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각기 다른 신념인 내세지향성과 현세회귀성은 죽음불안에 각각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내세지향성은 죽음관여도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는 미치지 않고 죽음의 긍정적 의미를 강화시키고 부정적 의미를 약화시킴으로써 죽음관여도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내세지향성은 죽음에 대한 태도 가운데 특히 인지적 측면인 죽음의 의미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측면인 죽음불안, 그리고 동기적 측면인 죽음관여도에 갈수록 그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기는 하나 죽음에 대한 태도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음을 불안해하고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회피하는 것은 죽음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죽은 후에도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계에서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전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인간은 정의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죽음은 자기소멸이 아니라 현세에서 내세로의 이행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죽음의 의미와 죽음불안 및 죽음관여도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측면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탐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죽음의 긍정적 의미는 죽음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죽음의 부정적 의미는 죽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영향의 크기로 볼 때,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의미 부여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보다 부정적 의미 부여를 현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죽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죽음의 의미의 하위차원 수준에서 살펴보면, 좌절 차원과 자연 차원의 효과가 특히 강하며, $r = .53$, $r = -.38$, $p < .01$, 해방 차원과 충격 차원도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8$, $r = .19$, $p < .01$. 즉 사람들이 죽음을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이 한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반면 죽음은 삶의 자연적인 측면이며 시간의 정상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체험이라고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죽음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충격 차원을 제외하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차원들은 다 죽음의 의미 가운데 개인내적 귀결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중요한 발달과제가 되는 청년기만의 특징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성인기나 노년기에서는 죽음의 의미의 어떤 측면이 죽음불안

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발달 시기에 따른 조절효과를 조명하는 것이 후속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죽음불안은 예상과는 달리 죽음관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죽음불안과 죽음관여도의 관계를 하위차원 수준에서 검토하기 위해 죽음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및 죽음관심 또는 죽음수용을 통제하여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죽음불안은 죽음수용 및 죽음관심과 각각 상반되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죽음불안과 죽음수용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r = -.40$, $p < .01$, 죽음불안과 죽음관심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r = .31$, $p < .01$.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죽음불안이 죽음관여도 전반에 부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가설은 죽음에 대한 수용-회피라는 차원에서만 지지되었고 죽음에 대한 관심-무관심이라는 차원에서는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죽음불안과 죽음수용 사이의 부적 관계는 죽음과 관련된 불안이 강한 사람은 그러한 부정적 정서가 활성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위시하여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불안은 ‘죽음 회피’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Knight 등(2000)의 연구, 죽음불안은 ‘무관심과 도피’ 차원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가네코(金兒, 1996)의 연구 등과 부합되는 결과다. 한편 죽음불안과 죽음관심 사이의 정적 관계는 죽음불안이 강한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사고의 빈도가 높다는 장휘숙(2000)의 연구에 부합되는 결과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죽음관여도와 죽음불안의 관계는 죽음불안과 죽음수용(회피)의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분포와 죽음불안과 죽음관심(무관심)의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분포가 합쳐진 X자형의 관

제이기 때문에 죽음불안과 죽음관여도 사이에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의거하면 죽음불안이 높은 사람 중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하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생각을 강하게 회피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죽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죽음불안이 높아질 때,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회피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집착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조건에 대한 탐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죽음의 의미와 죽음관여도의 관계에 관해서, 죽음의 긍정적 의미는 죽음관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죽음의 부정적 의미는 죽음관여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관 분석을 통해 죽음의 긍정적 의미는 죽음관여도의 하위차원 중에서 특히 죽음관심과 관련이 깊고, $r = .36, p < .01$, 죽음의 부정적 의미는 특히 죽음수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39, p < .01$. 죽음의 의미의 하위차원 수준에서 살펴보면, 죽음수용은 좌절 차원과 자연 차원의 영향을 특히 강하게 받으며, $r = -.46, r = .30, p < .01$, 죽음관심은 집대성 차원과 해방 차원의 영향을 특히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1, r = .25, p < .01$. 즉 사람들이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이 인생의 좌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측면이라고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사람들이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죽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나 죽음이 인생의 고통과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동기적 측면에 관해, 긍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죽음인지도(권혜진, 1980), 죽음에 대한 사고의 빈도(장휘숙, 2000), 죽음에 대한 사색성(丹下, 1995) 등으로 개념화하는 경우와 부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죽음 회피(Wong et al., 1994), 무관심과 도피(金兒, 1996) 등으로 개념화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동기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죽음관여도를 설정하고 긍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춘 차원은 죽음관심(-무관심), 부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춘 차원은 죽음수용(-회피)이라고 칭하기로 했다. 결과 분석을 통해 죽음수용과 죽음관심은 같은 동기적 측면이고 죽음수용이 죽음관심의 하나의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 죽음불안이나 죽음의 의미와 각각 상이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독립성이 강한 차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세관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생명존중 의지에 미치는 영향

내세관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생명존중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내세지향성은 생명존중 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내세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죽은 후에도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후세계에서 자신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현세에서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영원한 세계인 내세에서 보상과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인과응보론을 강하게 믿고 있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영원성에 대한 지각이 생기기 때문에, 죽음이 자기소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나 내세에 대한 전망이 애매한 사람보다 자살이나 임신중절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강

해지고 타자를 살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의도도 강해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다.

또한 현사회귀성은 생명존중의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사회귀성이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으면 현세로 다시 태어나거나 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은 현세에서의 삶의 복수성(複數性)을 함축하는 견해이어서 현세에서의 삶의 일회성을 강조하는 경우보다 현세에서의 삶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세의 삶에 고집할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그만큼 저하되기 때문에 생명존중의지가 약해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다.

한편 죽음의 긍정적 의미는 생명존중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1과 죽음관여도는 생명존중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죽음의 의미, 죽음관여도 및 생명존중의지는 하위차원을 포함하는 변인들이기 때문에 현상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위차원 수준에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가설 11과 가설 12와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추가적 분석의 결과를 생명존중의지의 하위차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중절억제의지는 내세지향성에 의해 강화되고, 현사회귀성에 의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으나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의미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죽음의 부정적 의미의 중절억제의지에 대한 부적 영향은 주로 허무 차원과 좌절 차원에 의한 것이었다. 개인의 죽음을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개인의 죽음이 갖는 중요성을 부인하고 사회적으로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태아의 죽음에 대

해서도 그 중요성을 평가절하 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절억제의지가 약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죽음은 한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건이라는 생각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실현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좌절 차원과 중절억제의지의 부적 관계는 죽음을 인생의 좌절로 간주하는 사람은 자기실현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태아가 자기 인생의 장애물로 간주될 때는 낙태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살억제의지는 내세지향성에 의해 강화되고, 현사회귀성에 의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가설 설정 단계에서의 예상과 달리 죽음의 긍정적 의미와 죽음관심에 의해서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세지향성이 자살억제의지에 대해 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강한 내세신앙은 시간적 전망의 확대, 추상적 사고, 장기적 계획 형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자살억제의지를 강화시키는 반면, 죽음이 자기소멸을 의미한다는 생각은 시간적 전망의 수축, 구체적 사고, 장기적 계획 결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자살억제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다. 단, 강한 내세신앙을 의미하는 내세지향성이 자살억제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만약 자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특수한 집단의 경우는 내세지향성이 자살억제의지를 약화시키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현사회귀성이 자살억제의지에 대해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내세관 특성 차원에서 영혼의 영향이나 윤회사상은 자신의 죽음이 타인에게 주는 효과의 상상이나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에 토대를 제공하는 세계관이기 때

문에 자살억제의지를 약화시킨다는 해석을 지지하는 결과다. 또 이러한 결과는 자살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도 어떤 형태로 생명이 연속되고 하늘에서 지상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Douglas(1967)의 연구나 자살시도 집단에서는 20%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표현했으나 통제집단에서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Maris(198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 영혼의 영향이나 윤회사상을 강하게 믿으면 반드시 자살억제의지가 약해진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세관 특성의 또 하나의 차원인 내세지향성에 포함되는 내세신앙이나 인과응보론을 동시에 강하게 믿는다면 현세회귀성의 자살억제의지에 대한 부적 영향은 그것을 능가하는 내세지향성의 정적 영향에 의해 충분히 상쇄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살억제의지를 예측하려면 현세회귀성뿐만 아니라 내세지향성의 수준을 알아야 한다.

죽음의 긍정적 의미의 자살억제의지에 대한 부적 영향은 주로 해방 차원에 의한 것이었다. 이 결과는 아무리 죽음은 인생의 집대성이며 자신의 가치와 인생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나 자연스러운 삶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자살억제의지는 강해지지 않는 반면, 죽음이 인생의 고통과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살억제의지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관심도 자살억제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 자주 생각하게 되는 주제가 인생으로부터의 해방으로서의 죽음이라면 자살억제의지가 약해진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간다.

마지막으로 장기기증의도는 내세지향성에 의해 강화되고, 현세회귀성에 의해 약화될 뿐만 아

니라, 죽음의 긍정적 의미와 죽음관심에 의해서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세지향성이 장기기증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현세회귀성은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서구에서는 장기기증이 활발한 반면 동양에서는 장기기증이 부진한 하나의 이유로서 내세관의 차이가 있으며, 영혼과 신체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현세와 내세를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고 내세를 강조하는 내세관은 장기기증의도를 증진시키는 반면, 현세와 내세의 상호 영향관계를 전제로 하고 초혼재생(招魂再生)을 통한 조상숭배를 위해 시신이 중요시되는 내세관은 장기기증의도를 저하시킨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다.

장기기증의도에 대한 죽음의 긍정적 의미의 정적 영향은 주로 집대성 차원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집대성이며 자신의 가치와 인생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장기기증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져 있기 때문에 장기기증의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죽음이 인생의 집대성도 아니고 최후의 시험과 같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굳이 장기기증의사를 밝힐 필요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의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죽음관심이 장기기증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과 타자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는 태도는 죽음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생 내지 생명에 대한 사색을 심화시켜 생명의 존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장기기증의도를 강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세관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생명존중의지를 설명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이상과 같은 추가적 분석의 결과들은 생명존중의지의 하위차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생명존중의지의 하위차원들은 두 가지의 내세관 특성과는 유사한 관계 양상을 보였으나 죽음의 의미나 죽음관여도와는 상이한 관계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절억제의지, 자살억제의지 및 장기기증의도를 설명하는 개별적인 모형을 구축하는 일은 후속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모형이 내세관 유형, 죽음과 관련된 경험 성별 등의 조건을 달리하는 하위집단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알아봄으로써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절변인을 탐색하는 것도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전체 논의

본 연구가 한국인의 내세관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신념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이라는 차원으로 수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속, 불교, 풍수지리, 유교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영혼의 영향’, ‘윤회사상’, ‘조상의 영향’과 같은 요소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내세관 특성으로서 융합되어 현세와 내세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현세회귀성이라는 차원으로 인지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 들어온 거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해왔으며,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특히 강조하는 ‘내세신앙’, ‘이상세계’, ‘인과응보론’과 같은 요소들은 사후세계를 행복하고 정의로운 영원한 세계로 간주하는 내세지향성이라는

차원으로 종합되어 인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높은 현세회귀성은 불교, 유교, 풍수사상, 및 무속신앙에서 볼 수 있는 동양적 내세관의 특징을 나타내며 현세와 내세의 밀접한 관계와 현세에서의 삶의 복수성(複數性)을 함축하는 신념을 의미하는 반면, 낮은 현세회귀성은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서양적 내세관의 특징을 나타내며 현세와 내세의 단절과 현세에서의 삶의 일회성(一回性)을 함축하는 신념을 의미한다. 한편 내세지향성은 인류에 보편적인 내세관 특성 차원이며, 높은 내세지향성은 인간존재의 영원성과 현세에 대한 내세의 우월성을 믿는 종교적 특징을 의미하고 낮은 내세지향성은 그러한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비종교적 특징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 대학생들 가운데 현세회귀성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척도 점수가 4.5이상인 사람)은 소수(7.6%)에 불과하지만 내세지향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45.4%)이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가 세속화됨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전통적 내세관은 점차 쇠퇴하는 추세에 있으나 인간의 본질인 영성(靈性)에 뿌리박고 있는 보편적 내세관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엄격하게 분리시키고 있으며, 산 자는 그러한 죽은 자의 세계를 예감하면서도 현재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내세관에 바탕을 둔 상례나 제례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감안할 때, 낮은 현세회귀성은 청년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이고 장년기나 노년기에는 전통적 내세관으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은 상호 독립적인 차원이며, 현세회귀성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지에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 내세지향성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지에 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 가운데 현세회귀성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면, 현세회귀성은 현대 한국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 심리적으로 역기능적이기 때문에 쇠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살았던 시대에서와는 달리, 현대 한국사회는 개인주의적이고 경쟁 지향적인 분위기 속에서 죽은 자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산 자의 영역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현세회귀성은 전시대의 잔재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자신의 조상을 위시하여 죽은 자와의 영향 관계를 의식하는 것은 현세주의적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키는 힘을 상실하여, 오히려 죽음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역기능적 영향을 청년들에게 미치게 된 것이다. 특히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중요한 발달과제로 대두되는 청년기에서는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후세계의 존재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현세회귀성은 자기의 독립과 자율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적응적인 태도일 수 있다. 물론 전통적 내세관을 거부하는 것이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위한 청년기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역사적 추세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에조차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념이 다른 심리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세회귀성은 계속 쇠퇴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은 상호 독립적인 차원이라는 결과는, 개인의 내세관을 이해할 때 역기능적 측면인 현세회귀성과 순기능적 측면인 내세지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시사한다. 개인의 마음속에서는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이 독특한 조합을 이룬 형태로 내세관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며, 양쪽 모두 높거나 낮을 수도 있고 한쪽만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내세지향성은 높지 않으면서 현세회귀성만이 높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지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세지향성은 높지만 현세회귀성은 낮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자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다행이지만, 내세에 대한 확신이나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윤회사상이나 영혼의 영향만을 믿게 되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본 연구의 주된 의의는 내세관 특성(내세지향성, 현세회귀성), 죽음의 의미(해방, 자연, 집대성, 좌절, 충격, 허무), 죽음불안, 죽음관여도(죽음수용, 죽음관심), 생명존중의지(자살억제지, 중절억제지, 장기기증의지) 등의 개념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를 재정립함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을 전체적으로 포착하고 사생관의 내부구조를 밝혔다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단편적인 것들이었으나, 본 연구는 사생관에 포함되는 여러 요소들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통합하여 전체적 구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이는 심리학 영역에서 등한시 해왔던 죽음과 내세라는 추상적 주제를 구체화하여 기타 변인들과

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자신의 태도와 비교함으로써 사생관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자신의 사생관 요소간에 의식하지 못했던 부정적 영향 관계가 있다면, 사생관에 대한 보다 깊은 자각은 그러한 연결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절억제의지나 자살억제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그러한 생명존중의지의 배경에 특정한 죽음에 대한 태도와 내세관이 있었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태도나 내세관을 재고함으로써 생명존중의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태도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임신중절이나 자살 그리고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가 죽음에 대한 태도와 내세관에 뿌리박고 있으며, 인간 존재의 영원성과 현세에서의 삶의 일회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생명의 존귀성을 자각하게 하는 풍요로운 토양이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혜진 (1980).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의·간호계 종사자 및 학생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10(2), 21-40.
- 김정원 (1992).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인지적 몰락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 석사학위논문.
- 김태련 (1988).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미국 나성 교포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30-47.
- 박광배, 신민섭 (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박종한 (1979). 한국장례의식의 정신분석적 고찰. *최신의학* 22(7), 79-86.
- 소병욱 (1996). *생명윤리*. 왜관: 분도출판사.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 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윤성림, 윤진 (1993). 청소년기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 고교생을 대상으로한 심리적 특성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107-120.
- 이길홍 (1980). 죽음학에 관한 종합적 고찰 죽음과 임종에 관한 의학적 과제. *한국의과학*, 12(2), 9-22.
-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한성열 (2001). 韓國人の來世觀에 관한 探索的 研究.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77-96.
- 이시형 (1980). 임종과 자살의 정신의학적 가료. *대한의학협회지*, 23(1), 25-30.
- 이은주, 김철규 (1980). 한국인의 자살에 관한 태도: 의과대학생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19(1), 12-26.
- 이희철 (1995). 자살생각과 숨은비행의 공통기제: 청소년의 인지적 몰락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0). 애착과 죽음불안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27-143.
- 조지연 (1989). 죽음에 대한 불안태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호노 (1999). 장기이식과 장기이식법의 운용. *한일법학회*, 18, 307-362.
- 중앙일보 (2001. 8. 10). 성경험 대학생 16% 임신 경험, 25면.
- 최길성 (1986). *한국의 조상숭배*. 서울: 예전사.
- 하희선, 김정순 (1996). 국내 주요 이식병원에서

- 의 뇌사자장기기증 현황 분석. *대한이식학회지*, 10, 163-170.
- 池口恵観 (1998). 臓器移植に関する日本人の意識構造(第1報): 死生観を構成する背景要因について. *民族衛生*, 64(3), 161-182.
- 今井孝太郎 (1985). 「死」の心理と教育(I). *龍谷大學論集*, 426, 2-30.
- 今井孝太郎 (1989). 「死」の心理學的考察. *龍谷大學論集*, 434・435, 59-72.
- 今井孝太郎 (1991). 死別體驗の意義 「死」の心理と教育(V). *龍谷大學論集*, 437, 2-20.
- 岡村達也 (1983). 「死に對する態度」の研究: 青年と成人との比較. *東京大學教育學部紀要*, 23, 331-343.
- 金兒曉嗣 (1994). 大學生とその兩親の死の不安と死觀. *人文研究(大阪市立大學文學部紀要)*, 46, 537-564.
- 金兒曉嗣 (1996). 來世觀と死觀の構造 尺度の作成と信賴性・妥當性の検討. 金兒曉嗣(代表)「來世信仰は死の不安を和らげるか?」平成5・6年度 科學研究費補助金(一般研究C)研究成果報告書, 29-66.
- 金兒曉嗣 (1997). 日本人の宗教性. 東京: 新曜社
- 河野由美 (1998). 看護婦の死生觀. 宗教觀と死の不安の計量的研究. 第29回 日本看護學會論文集: 看護綜合, 88-90.
- 丹下智香子 (1995). 死生觀の展開. *名古屋大學教育學部紀要: 教育心理學科*, 42, 149-156.
- 丹下智香子 (1998). 身體部位提供への協力の意志と死に對する態度の關聯: 大學生と看護學生の比較. *名古屋大學教育學部紀要-教育心理學科*, 45, 17-26.
- 丹下智香子 (1999). 青年期における死に對する態度尺度の構成および妥當性・信賴性の検討. *心理學研究*, 70(4), 327-332.
- 中山治, 石坂要, 水谷信子 (1986). 生命倫理(bioethics)に關する看護學生の認知構造 <3>: 人工妊娠中絶の場合. *看護展望*, 11(5), 28-33.
- 成澤光 (1999). 腦死臓器移植・プライバシー・生命政策. 關根清三編, *死生觀と生命倫理*.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松浦賢長 (2000). わが國の大學生の人工妊娠中絶に對する態度に關する研究: 胎兒觀・死生觀との關聯. *母性衛生*, 41(2), 271-277.
- Ariès, P. (1983). *Images de l'homme devant la mort*. (유선자 역, 1997・1994, 죽음 앞에 선 인간상・하. 서울: 동문선)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irkimer, J. C., Barbee, A. P., Francis, M. L. and Berry, M. M., Deuser, P. S., & Pope, J. R. (1994). Effects of refutational messages, thought provocation, and decision deadlines on signing to donate orga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735-1761.
- Cicirelli, V. G. (1998). Personal meanings of death in relation to fear of death. *Death Studies*, 22(8), 713-733.
- Conte, H. R., Weiner, M. B., & Plutchik, R. (1982). Measuring death anxiety: Conceptual, psychometric, and factor-analytic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775-785.
- Collett, L., & Lester, D.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ournal of Psychology*, 72, 179-181.

- Devins, G. M. (1979). Death anxiety and voluntary passive euthanasia: Influences of proximity to death and experience with death in important other per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01-309.
- Douglas, J. D. (1967). *The social meanings of suicid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eifel, H. (1990). Psychology and death: Meaningful rediscovery. *American Psychologist*, 45(4), 537-543.
- Feifel, H., & Branscomb, A. B. (1973). Who's afraid of dea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1(3), 282-288.
- Florian, V., & Kravetz, S. (1983). Fear of personal death: Attribution, structure, and relation to religious belie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3), 600-607.
- Hoelter, J. W. (1979). Multidimensional treatment of fear of dea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5), 996-999.
- Horton, R. L., & Horton, P. J. (1991). A model of willingness to become a potential organ donor.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3, 1037-1051.
- Kaplan, H. I., Sadock, B. J., & Grebb, J. A. (1994). (Ed.).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seventh edition*. Balyimore: Williams & Wilkins.
- Kastenbaum, R., & Costa, P. T. (1977).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deat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8, 225-249.
- Knight, K. H., Elfenbein, M. H., & Capozzi, L. (2000). Relationship of recollections of first death experience to current death attitudes. *Death Studies*, 24, 201-221.
- Maris, R. (1981). *Pathway to suicide: A survey of self-destructive behavior*.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eadow, M. J., & Kahoe, R. D. (1984). *Psychology of religion: Religion in individual lives*. Harper & Row. (최준식 역, 1992 · 1994, 종교심리학 상 · 하. 서울: 민족사)
- Osarchuk, M., & Tatz, S. (1973). Effect of induced fear of death on belief in after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2), 256-260.
- Radecki, C. M. & Jaccard, J. (1997). Psychological aspects of organ donation: A critical review and synthesis of individual and next-of-kin donation decisions. *Health Psychology* 16, 183-195.
- Reubsact, A., Borne, B. van den, Brug, J., Pruyn, J., & van Hooff, H. (2001). Determinants of the intention of Dutch adolescents to register as organ donors, *Social Science & Medicine*, 53(3), 383-392.
- Sagan, C. (1997). *Billions & Billions*. New York: Ballantne Books.
- Spilka, B., Stout, L., Minton, B., & Sizemore, D. (1977). Death and personal faith: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iligion*, 16, 169-178.
- Templer, D. I. (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 165-177.
- Thalbourne, M. A. (1996). Belief in life after death: Psychological origins and influ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6), 1043-1045.
- Thorson, J. A., & Powell, F. C. (1988).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s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5), 691-701.
- Wong, P. T. P., Rechter, G. T., Gesser, G.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 121-1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1 차원고접수일 : 2003. 10. 27

최종원고접수일 : 2004. 2. 5

K C I

A Study on Development of a View of Life and Death Scale

Yoshiyuki Inumiya
Korea University

Seong-Yeul Ha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velopment of a synthetic scale to measure young adults' views of life and death. Participants were 610 university students. The authors developed a View of Life and Death Scale including several subscales of afterlife views(belief in afterlife and retribution, belief in souls' effects and transmigration), meanings of death(liberation, nature, integration, collapse, impact, futility), death anxiety, death concern(death acceptance, death awareness) and life respect will(suicide inhibition, abortion inhibition, organ donation intention). The present study contributed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view of life and death in young adulthood. This study, therefore, could work as a stepping stone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lements included in views of life and death in young adulthood and to explore the consequences and determinants of personal view of life and death.

key words : afterlife views, meanings of death, death anxiety, death concern, life respect will, suicide, abortion, organ donation

부록 1. 연구변인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내세지향성																	
2. 현세회귀성	.09 [*]																
3. 죽음의 긍정적 의미	.24 ^{**}	.03															
4. 죽음의 부정적 의미	-.26 ^{**}	.19 ^{**}	-.08														
5. 해방	.09 [*]	-.01	.72 ^{**}	-.02													
6. 집대성	.26 ^{**}	.11 ^{**}	.71 ^{**}	-.09 [*]	.22 ^{**}												
7. 자연	.14 ^{**}	-.05	.52 ^{**}	-.06	.04	.14 ^{**}											
8. 좌절	-.29 ^{**}	.19 ^{**}	-.16 ^{**}	.79 ^{**}	-.07	-.08 [*]	-.19 ^{**}										
9. 충격	.05	.11 ^{**}	-.07	.50 ^{**}	-.15 ^{**}	-.04	.10 ^{**}	.21 ^{**}									
10. 허무	-.20 ^{**}	.05	.10 [*]	.56 ^{**}	.18 ^{**}	-.04	.04	.12 ^{**}	-.09 [*]								
11. 죽음불안	-.21 ^{**}	.21 ^{**}	-.31 ^{**}	.44 ^{**}	-.18 ^{**}	-.08 [*]	-.38 ^{**}	.53 ^{**}	.19 ^{**}	.05							
12. 죽음관여도	.13 ^{**}	-.05	.37 ^{**}	-.20 ^{**}	.23 ^{**}	.29 ^{**}	.22 ^{**}	-.25 ^{**}	-.09 [*]	-.00	-.20 ^{**}						
13. 죽음수용	.17 ^{**}	-.17 ^{**}	.25 ^{**}	-.39 ^{**}	.10 [*]	.13 ^{**}	.30 ^{**}	-.46 ^{**}	-.10 [*]	-.11 ^{**}	-.47 ^{**}	.74 ^{**}					
14. 죽음관심	.08	.04	.36 ^{**}	-.04	.25 ^{**}	.31 ^{**}	.11 ^{**}	-.06	-.06	.06	.02	.91 ^{**}	.41 ^{**}				
15. 생명존중의지	.38 ^{**}	-.25 ^{**}	.01	-.25 ^{**}	-.13 ^{**}	.15 ^{**}	.02	-.21 ^{**}	.03	-.25 ^{**}	-.16 ^{**}	-.04	.09 [*]	-.11 ^{**}			
16. 중절억제의지	.23 ^{**}	-.21 ^{**}	.05	-.30 ^{**}	.01	.10 [*]	-.01	-.24 ^{**}	-.05	-.25 ^{**}	-.06	.05	.14 ^{**}	-.02	.75 ^{**}		
17. 자살억제의지	.34 ^{**}	-.17 ^{**}	-.15 ^{**}	-.09 [*]	-.27 ^{**}	.05	-.03	-.06	.08 [*]	-.17 ^{**}	-.16 ^{**}	-.23 ^{**}	-.06	-.28 ^{**}	.78 ^{**}	.32 ^{**}	
18. 장기기증의도	.19 ^{**}	-.13 ^{**}	.21 ^{**}	-.12 ^{**}	.08	.21 ^{**}	.13 ^{**}	-.15 ^{**}	.02	-.06	-.14 ^{**}	.21 ^{**}	.16 ^{**}	.19 ^{**}	.45 ^{**}	.13 ^{**}	.08

^{*} $p < .05$, ^{**} $p < .01$